

# 욥기 강해

AN EXPOSITION  
ON THE BOOK OF JOB

[3판-수정]

김효성

Hyosung Kim

Th.M., Ph.D.

옛신앙

oldfaith

2025



## 머리말

주 예수 그리스도(마 5:18; 요 10:35)와 사도 바울(갈 3:6; 딤후 3:16)의 증거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진술된 대로(1:8), 우리는 성경의 원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류가 없이 기록되었고 그 본문이 “그의 독특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었다”고 믿는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적 견해이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서 전통적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을 중요히 여기며 야곱 벤 카임에 의해 편집한 제2 랍비 성경(봄버그판)을 표준적 본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본다.

성경은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들에도 유일한 규범이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풍조와 운동이 많은 영적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기를 원하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를 원한다.

성경으로 설교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다(암 8:11). 오늘날 많은 설교와 성경강해가 있지만, 순수한 성경 지식과 입장은 더 희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오늘날 요구되는 성경강해는 성경 본문의 뜻을 명료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일 것이다. 실상, 우리는 성경책 한 권으로 충분하다. 성도들은, 유일한 선생님이신 성령님의 지도를 구하며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강해는 오직 작은 참고서로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심히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간절함과 건강을 주시고 또 약한 남편을 위해 일평생 헌신한 아내를 주시고 또 많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한 성도들과 합정동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 내용 목차

머리말 .....	3
서론 .....	7
1장: 욥이 재산과 자녀를 잃음 .....	9
2장: 욥이 자기 건강까지 잃음 .....	18
3장: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함 .....	21
4장: 엘리바스—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	24
5장: 엘리바스—하나님의 징계는 복되다 .....	28
6장: 욥—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	37
7장: 욥—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	41
8장: 빌닷—네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	45
9장: 욥—하나님과 쟁변할 자 없다 .....	49
10장: 욥이 하나님께 탄원함 .....	61
11장: 소발—욥에게 회개를 촉구함 .....	65
12장: 욥—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을 허용하셨다 .....	69
13장: 욥—너희는 다 쓸데없는 의원들이다 .....	72
14장: 욥—허무한 인생을 쉬게 하소서 .....	75
15장: 엘리바스—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 .....	79
16장: 욥—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	88
17장: 욥—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함 .....	92
18장: 빌닷—악인의 빛은 꺼진다 .....	95
19장: 욥—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	99
20장: 소발—악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	103
21장: 욥—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한가? .....	106
22장: 엘리바스—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	111

23장: 옴—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	116
24장: 옴—하나님께서 악인의 심판을 지연하신다 .....	120
25-26장: 빌닷과 옴—벌레 같은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 ..	124
27장: 옴—악인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 .....	127
28장: 옴—지혜는 고귀하다 .....	130
29장: 옴—옛날은 복되었다 .....	133
30장: 옴—그러나 지금은 고난 중에 있다 .....	137
31장: 옴—나는 의롭게 살았다 .....	141
32장: 엘리후가 말을 시작함 .....	146
33장: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 알리지 않으심 .....	150
34장: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심 .....	154
35장: 사람의 의는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지 못함 .....	159
36장: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선하심, 엄위하심 .....	162
37장: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크심 .....	167
38장: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심 .....	170
39장: 동물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 .....	176
40장: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	180
41장: 온 천하의 것이 내 것이다 .....	184
42장: 옴의 회개와 회복 .....	187

## 서론

욥기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욥 자신이거나 모세라고 본다.<sup>1)</sup> 어떤 학자들은, 욥의 사건이 족장 시대의 것일지라도, 욥기는 솔로몬 시대에 쓰였다고 보나,<sup>2)</sup> 그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욥기의 내용의 진실성을 손상시키는 생각이라고 보인다.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욥기가 욥과 그 친구들의 실제의 대화를 쓴 역사가 아니고 하나의 드라마라고 하지만, 욥기는 희곡이 아니고 역사적 내용이다. 매튜 풀(Matthew Poole)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본서는 허구나 비유가 아니고 참된 역사이다.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장소들, 인물들, 사물들과 그 상황들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진술들(2:11; 42:14 등)을 가진 그 책의 전체 문맥으로부터, 또 에스겔 14:14와 야고보서 5:11같이 그를 경건과 인내의 참되고 두드러진 예로 말하는 성경의 후대 저자들로부터 충분히 분명하다.<sup>3)</sup>

욥기 내용은 모세 이전 주전 2천년경의 족장 시대에 적합하다. 그것은 특히 욥의 오랜 수명(약 200세 이상)<sup>4)</sup>이나 제사 방식과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등에서 추론할 수 있다. 또 욥기의 배경은 이방 세계이다. 욥기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112회 사용하지만(엘 54회, 엘로아흐 41회, 엘로힘 17회), 여호와라는

---

1) Matthew Poole, Albert Barnes, A. R. Fausset 등. 탈무드는 모세로 봄(Baba Bathra 14b).

2) Luther, Keil & Delitzsch, E. J. Young, M. F. Unger, G. L. Archer.

3) Matthew Poole, *A Commentary on the Holy Bible*, I, 921.

4) 욥의 자녀들은 10명이었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다고 보면(1:2) 30세쯤 결혼하여 약 30-40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으며, 고난 후 140년을 더 살았으니(42:16) 200세는 넘었을 것이다. 헬라어 70인역 본문은 “170년을 더 살았으며 그의 연령이 240세이었던라”고 되어 있다.

명칭은 32회만 사용한다.<sup>5)</sup> 또 구약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17회밖에 나타나지 않는 ‘전능자’(솧다이 **יְהוָה**)라는 명칭이 본서에서는 31회나 사용된 것도 특이하다. 이런 점들은 욥기의 내용이 족장 시대의 사건이고 그 시대에 쓰여졌음을 보이는 것 같다. 출애굽기 6: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자이었다(1:1). 우스 땅은 에돔 지역이었다고 본다(애 4:21). 헬라이어 70인역의 욥기 끝에는 욥을 아브라함의 5대손인 에돔 사람(에서의 자손)이라고 증거하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그의 이름은 전에는 요밥이었고 . . . . 또 그 자신은 에서의 아들들 중 하나인 그의 아버지 자레와 그의 어머니 보소라의 아들이었으므로 그는 아브라함의 5대손이었다. 또 이들은 에돔을 다스리는 왕들이었고 . . . . 또 그에게 온 친구들은 에서의 자손들 중 데만 사람들의 왕 엘리파스와 소개 사람들의 군주 발닷과 미내 사람들의 왕 소발이었다.<sup>6)</sup>

욥기의 **주요 내용**은 욥의 고난과 회복이다. 본서의 **특정적 진리**는 고난이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 (1) 죄에 대한 징벌로 받는 고난이 있다. 그것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이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2) 특정한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고 단지 신앙 인격의 훈련을 위한 고난도 있다. 욥의 고난은 그런 고난이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고전 4:11-13; 고후 6:6-10; 11:23-27)도 이런 고난이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죄의 징벌이 아니고 단지 그의 인격의 단련을 위해 주시는 고난이다. 성도는 이런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마 5:10-11; 행 14:22; 빌 1:29; 골 1:24; 딤후 3:12).

---

5) 구약에 **엘로힘**(**אֱלֹהִים**) 2570회, **여호와**(**יהוה**) 약 6823회 나옴(BDB).

6) Lancelot Brenton, *The Septuagint Version: Greek and English*, p. 698.



# 1장: 욥이 재산과 자녀를 잃음

## 1-5절, 의인 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은 에돔 지역이었던 것 같고(애 4:21),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거나 그의 몇 대 자손이었던 것 같다.<sup>7)</sup>

본문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한다. ‘온전하다’는 원어(탈 **קַדְּ**)는 비교적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인격을 가리킨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고 증거할 때(창 6:9), ‘완전한’이라는 말도 같은 뜻이다. 또 성경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말할 때에도(딤후 3:2) 같은 뜻이다. 우리는 성경말씀에 비추어 또 자기 양심에 비추어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4에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간증하였고,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21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했다.

또 욥은 정직하였다. ‘정직함’은 올바름, 기준에 맞음이라는 뜻이며 의롭다는 말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바르게 행하고 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또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의 본질이요(잠 1:7) 그럴 때 사람이 악을 떠날 수 있다(잠 16:6). 노아나 다니엘도 그러했다.

[2절] **그 소생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이며.**

---

7) 헬라이어 70인역 후기(後記)는, 우스 땅이 에돔과 아라비아 국경 Ausis 땅이며, 욥은 에서의 아들 자레의 아들, 즉 아브라함의 5대손이었다고 말한다.

## 욥기 1장: 욥이 재산과 자녀를 잃음

욥은 많은 자녀들을 두었다.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뜻이다. 창세기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물론, 자녀를 안 주시는 경우도 있다. 노아는 500세 이후에 세 아들을 낳았다(창 5:32). 아브라함도 100세에 한 아들을 얻었다. 그러나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일반적 뜻이다.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시 127:3). 자녀 출산과 양육은 비록 힘든 일이지만 복되고 보람 있는 일이다.

욥은 자녀들을 낳아 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우리는 수고롭고 복잡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에녹도 그러했다. 창세기 5:21-22, “에녹은 65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므두셀라를 낳은 후 3백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독신(獨身)은 신앙생활하기에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현실도피적 생활이 아니다. 정상적 신앙생활은 현실 속에서 수고하면서 사는 생활이다. 그것은 결혼한 사람들이 자녀들을 낳아 기르며 가정을 이끌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포함한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성도의 일차적 경건 훈련의 장소이다. 자녀는 가정에서 경건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계명대로 의롭고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운다. 성도는 가정에서 믿음과 사랑, 겸손과 인내, 순종과 용서 등을 연습한다. 가정에서 잘 생활하는 자가 바로고 좋은 인격이 된다.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교훈했다(엡 6:1, 4).

**[3절]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백 겨리[1천]요 암나귀가 5백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욥은 물질적 부요함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재물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므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巨富)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었다(창 26:12-14).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과 가축들의 새끼의 복을 약속하셨다(신 28:4).

그러나 물질적 부요는 신앙생활에 큰 방해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주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며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다(마 19:23-24). 왜냐하면 부자는 마음이 해이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대신 돈을 의지하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였다(딤후 6:9-10).

그러나 욥은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교만치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고 재물에 종노릇하지 않았다. 그는 욥기 31:24에서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욥은 동방 사람들 중 가장 큰 자이었다. 동방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손이나(창 25:1-6),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이나(창 25:12-18), 에서의 자손을 가리킬 것이다(창 36장).

**[4-5절]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므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자녀들은, 아마 다 성장한 후에도,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들까지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형제들 간에 우애가 좋았다. 욥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들 간

에 사랑과 순종과 우애가 있는 모범이 되는 가정이었다.

그런데 욥은 그 잔칫날이 지나면 자기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염려하여 그들을 집으로 불러 성결케 하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욥은 죄의 심각성과 성결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건과 거룩함과 온전함뿐 아니라, 자녀들의 경건과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육신적 차원에서 자녀들을 위할 뿐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자녀들을 위했다. 그는 자녀들의 구원과 신앙 인격을 위해,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 혹 지은 죄를 씻음 받게 하기 위해 힘썼다. 그는 부모로서 열 명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러했다.

본문은 “욥의 행위는 항상 이리하였더라”고 말한다. 그는 한두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항상 그렇게 행했다. 그것은 참된 자녀 사랑이다. 부모에게 주는 성경 교훈의 핵심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라는 것이다. 잠언 22:6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교훈하였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의인 욥은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된다.

첫째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온전하였고 정직했고 악을 떠났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떠나야 한다.

둘째로, 욥은 많은 자녀들을 낳아 기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기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셋째로, 욥은 물질적 부요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 물질적 부요는 많은 경우 신앙생활에 시험거리가 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물질적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넷째로, 욥은 자녀들의 경건함과 온전함과 거룩함을 위하여 힘썼다. 부모의 첫 번째 의무는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한 인격이 되도록 잘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다.

## 6-22절, 욥이 재산과 자녀들을 잃음

[6-8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말하기를]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킨다. 욥기 38:7은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고 말한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 중 하나이다. 그의 죄는 교만이었다고 보인다(딤펴전 3:6). 사단은 실재(實在)한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뱀 속에 들어가 하와를 범죄케 하였다. 요한계시록 12:9는 그를 ‘큰 용, 옛 뱀’이라고 불렀다.

사단은 땅에 두루 돌아다니며 활동한다. 그는 세상 사람들을 죄 짓게 하고 성도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고 어지럽히며 파괴시킨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이며(요 8:44)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고(대상 21:1)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였다(수 3:1). 그는 예수님을 시험한 자요(마 4장)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며(고후 4:4) 세상의 죄악된 유행과 풍조를 조장한다(엡 2:2). 그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이며(벧전 5:8) 온 천하를 찢는 자이다(계 12:9).

사단의 권세는 크다. 그는 이 세상 임금(요 12:31), 이 세상 신(고후 4:4),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엡 2:2)라고 불리며 요한일서 5:19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사단은 마침내 지옥에 던지울 것이다. 요한계시록 20:10은 온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가 최종적으로 불과 유향 못, 즉 지옥 불못에 던지운다고 예언했다.

욥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다. 사람의 판단과 평가는 완전치 못하다. 사람은 다른 이의 중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외모만 보기 쉽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귀한 종 바울을 비난하고 욕하고 악평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이다. 잠언 16:25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말한다. 구약성경은 열왕들의 역사를 기록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이었는지, 악한 자이었는지를 기록하였다. 솔로몬은 늙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다(왕상 11:4).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왕상 15:11), 오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왕상 16:25), 아하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왕상 22:52). 열왕기상하에는 29번, 역대하에는 11번, 총 40번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온다.<sup>8)</sup>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말고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또 우리는 남을 볼 때도 외모만 보지 말고 그의 중심을 살펴보려 하고 그의 신앙 인격을 유의해 보아야 한다.

**[9-11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말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저주하리이다.**

사탄의 비난은, 욥이 까닭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 복 때문에 섬긴다는 것이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

---

8) 왕상 15:3, 5, 14; 16:7; 왕하 3:2; 8:18, 27; 10:30; 12:2; 13:2, 11; 14:3, 24; 15:18, 24, 28; 16:2; 17:2; 18:3; 21:2; 22:2; 23:32, 37; 24:9, 19; 대하 14:2; 24:2; 25:2; 26:4; 27:2; 28:1; 29:2; 33:2; 34:2; 36:5, 12.

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 복 때문인가? 그러면 물질적 복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중단될 것이다. 그가 물질적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버릴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순교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런 신앙은 고난을 견디기 어렵고 순교는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성경은 순수한 신앙을 가르친다.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마 16:24).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돌밭에 떨어진 씨는 환난과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를 가리켰다(마 13:20-21).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행 14:22). 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말했다(빌 1:29), 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말하였다(롬 14:7).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사단에게 욥의 소유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주셨다. 손은 힘을 상징한다. 사단은 세상의 것을 상당히 주장한다. 그는 욥의 모든 재산을 없애고 모든 자녀를 죽이기도 하였다. 누가복음 46에 보면, 사단은 예수께 말하기를,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내가 나의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준다고 하였다. 사단은 상당한 권세를 가졌다.

그러나 사단은 오직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계 안에서만 그 권세를 가지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는 온 세상에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그는 사탄과 악령들도 주장하신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귀신들은 심지어 돼지 속에 보내시기를 그에게 간구하였었다(마 8:31).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악령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계 20:10).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은 유익케 하는 깊은 뜻이 있다. 사람은 평안할 때 교만해지고 해이해지고 범죄하거나 탈선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천국을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세상의 헛됨을 알고 죄를 멀리하고 더 거룩해지며 하나님만 더 사모하고 의지하며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겸손해진다(시 119:67, 71; 고후 1:8-9; 12:7).

[13-22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만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발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때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만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赤身)[벗은 몸]이 나왔시온즉 또한 적신[벗은 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비난]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루아침에 큰 재앙을 당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만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한 사자(使者)가 욥에



## 욥기 1장: 욥이 재산과 자녀를 잃음

게 와서 스바 사람들이 습격하여 소들과 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말했고,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불살랐다고 말했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해 약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거친 들에서 대풍(大風)이 와서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때 욥은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다. “내가 모태에서 벗은 몸이 나왔사온즉 또한 벗은 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가 주관하심을 인정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렸고 이 모든 일에서 범죄하지 않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다. 열 정탐꾼들의 불신앙적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했던(민 14:1) 이스라엘 백성과는 너무 달랐다. 욥의 신앙과 의로운 인격은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 더욱 빛났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탄과 악령들은 세상을 주관하며 때때로 성도들에게 시험과 고난을 준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과 악령들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우리에게 고난을 줌을 알고 사탄과 악령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들과 잘 싸워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물질적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그의 뜻과 계명에 순종하여 그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

셋째로, 욥은 그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으나 하나님을 비난치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욥처럼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비난치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가 주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

## 2장: 욥이 자기 건강까지 잃음

[1-5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말하기를]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말하기를]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으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울지라.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욱하리이다.

욥에게 닥친 재앙은 사탄이 준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된 것이며 욥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의 순전함과 믿음을 굳게 지켰다. 사람은 생명이 귀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희생하여도 자기 생명이 보존되면 만족하지만, 몸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사탄은 주장한다. 사탄은 끝없이 변론하고 반론하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이다.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깊은 뜻 가운데서 사탄의 활동 범위를 정해 어느 정도 허용하신다. 그는 사탄에게 욥의 건강을 치도록 허락하셨다.

[7-9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온전함]을 굳게 지키는뇨? 하나님을 욱하고[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악한 피부병으로 욥을 쳤다. 심각한 악창이 그의 온 몸에 났다. 욥은 몸이 너무 가려워서 재 가운데 앉아

서 기와조각으로 몸을 굶었다. 그때 욥의 아내는 남편을 동정하거나 위로하기는커녕 그를 몹시 구박하였다. 그러나 욥은 믿음 없는 아내의 구박에도 낙망치 않고 더욱 믿음으로 나아갔다. 참 신자는 뜻단배와 같다. 뜻단배는 바람이 있어야 앞으로 잘 나아간다. 참된 신자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의 믿음이 더욱 빛난다. 그는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에게 기도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그가 앞에서 말한, “주신 자도 하나님이지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지라”는 고백(1:21)보다 더 진전된 고백이다. 욥은 모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전제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거저 받았으면 재앙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좋아한다면, 재앙 받을 때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태도일 뿐이다. 욥의 고백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 처분에 겸손히 순응해야 함을 보인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지혜와 의와 선으로 사람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심을 믿어야 하고, 고난 중에도 참고 기다려야 한다.

**[11-13절]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동정]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相約)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걸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친구 세 사람은 욥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러 서로 약속하고 왔다. 데만 사람 엘리바스는 예서의 자손이며(대상 1:45), 수아 사

람 빌닷은 아마 아브라함의 후처(창 25:2) 그두라의 자손일 것이다. 그들은 경건하고 존귀한 자들이었다고 보인다. 그들은 욥의 고난이 심각함을 알았다. 욥은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쇠약했다. 그들은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겹옷을 찢었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 사람이 괴로움이 심하면 겹옷을 찢는다. 르우벤은 구덩이에 요셉이 없음을 보았을 때 겹옷을 찢었었다(창 37:29). 또 욥의 친구들은 7주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한 말도 못하였다. 욥의 큰 고통은 이렇게 묘사되고 증거되었다.

그러나 욥의 고통의 기간은 긴 것 같지 않다. 첫 번째 재앙은 하루에 되었고(13절) 두 번째 재앙은 첫 번째 후, 몇 일 안 되어서이었고, 친구들의 방문도 두 번째 재앙 후, 얼마 되지 않아서였던 것 같다. 욥기 3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은 방문하여 7일 후, 하루 동안의 일이라고 본다. 그러면 욥의 고난은 몇 달 정도이었던 것 같다(욥 7:3).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사탄은 하나님께 나아와 욥을 비난하면서 그의 몸의 건강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를 구하였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비난하고 시험하며 오늘날에도 세상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벧전 5:8).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들까지도 주관하시는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살펴 회개할 바를 찾으며 입으로라도 범죄치 말아야 한다. 우리는 태어날 때 벗은 몸으로 와서 죽을 때 벗은 몸으로 간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과 같이 때때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 3장: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함

[1-10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말하기를]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다면, 남아(男兒)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다면, 그 날이 캄캄하였었다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취지 말았었다면, 유암[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다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다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 날을 두렵게 하였었다면,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다면, 해의 날 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다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다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다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다면, 날을 저주하는 자[자들]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자들]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다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었다면, 그 밤[새벽]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으로구나.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한 지 7일 후에, 욥은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였다. 그는 차라리 그 날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또 그 날의 새벽이 밝아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은 평안할 때 자기의 생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심각한 고통 중에서는 생일이 결코 기쁜 날이 아니다. 생일의 저주는 이 세상의 삶의 헛됨을 잘 보여준다.

8절의 ‘날을 저주하는 자들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은 마술사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것은 욥이 그들을 인정한다는 뜻이라기보다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11-19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황폐한] 터

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counselors)[모사들, 조언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은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사림 מַרְבָּק)[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중에[버려진] 낙태한[낙태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욥은 또 그가 어찌하여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고 살아서 엄마의 젖을 빨며 살았는가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그는 거기에는 황폐한 터를 수축한 세상의 임금들과 모사들이 있고 금은으로 집에 채운 존귀한 자들도 있었을 것이며 또 자신이, 태어날 때 죽어서 난 아이들처럼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거기에는 악한 자들의 소란스러움도 없고 수고하고 피곤한 자들에게 평안이 있고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도 평안이 있을 것이며 종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한다.

[20-26절]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하나님에게 둘러 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는]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신음하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이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미쳤음이다].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로게즈 לָגַז)[격동, 소동]만 임하였구나.

욥은 몸의 극심한 고통 중에서 죽음과 무덤을 심히 사모한다. 사람은 극심한 고난 중에 죽음을 사모하게 된다. 욥의 처지는 매우 고통스런 처지이었다. 그는 음식을 먹기 전에 탄식소리가 나며 그의 신음하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그에게 임했고 그의 무서워하는 것이 그의 몸에 미쳤다. 그에게는 평안이나

평온이나 안식이 없고 격동만 있었다. 사람은 고난 중에 죽음을 사모한다. 선지자 엘리야도 그러하였다. 그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죽였으나, 엘리야가 한 일을 아합 왕에게서 들은 왕후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고 통보하자, 두려워 자기 목숨을 위해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렘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며 말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왕상 19:4).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고난 많고 허무한 세상을 사랑치 말아야 한다. 요한일서 2:15-17,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대전 1:2; 12:8).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만 소망해야 한다. 시편 39:5-7, [다윗도]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천국은 이 세상보다 더욱 사모할 만하다. 고린도후서 4:18, [바울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8,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천국의 복됨을 안다면, 우리는 돈과 명예와 쾌락에 이끌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다.

## 4장: 엘리바스--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1-6절]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말하기를] 누가 네게 말하면[말하려 하면] 네가 염증[실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임하매 네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네게 당하매 네가 놀라는구나. 네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네 소망이 네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너의 경외함이 네 확신이 아니며 네 행위를 완전히 함이 네 소망이 아니냐?(NASB, NIV)]

본장은 욥의 친구 중 데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다. ‘염증이 난다’는 원어(라아 נִסְיָ)는 ‘참을 수 없다. 조급하다’는 뜻이라고 본다.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는 말은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조급하지 않겠느냐?”는 뜻 같다. 엘리바스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듣고 그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참고 있을 수가 없었다.

엘리바스는 전에 욥이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 즉 힘이 빠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 즉 낙망하여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고 말한다. 또 그는 “그러나 이제 이 일이 네게 임하니 네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네게 당하니 네가 놀란다”고 말한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로하기는 쉬우나 막상 자신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기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엘리바스는 또 욥에게 “너의 경외함이 네 확신이 아니며 네 행위를 완전히 함이 네 소망이 아니냐?”고 말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장래를 확신케 되고 행위를 완전히 할 때 장래를 소망케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형통함과 평안함이 있다. 시편 25:12-13,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



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또 행위를 완전히 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 잠언 4:18,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언 10:9,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7-11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멸망함]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흠어지느니라.**

엘리바스는 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한다. 그는 정직한 자는 망하지 않으나 악을 계획하고 행하는 자는 재앙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을 받을 것이며 사자같이 강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시고 그는 엎드러지고 말 것이라고 말한다. 악한 자들은 망할 것이다. 시편 1:6,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1:6,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잠언 13:9,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기쁨과 행복]은 꺼지느니라.” 잠언 14:11,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섭리자, 심판자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은 신약성경도 여전히 증거하는 성경 진리이다. 로마서 2:6-8,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갈라디아서 6:7-8,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12-21절]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의 이상(異像)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뻗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조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께서는]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使者)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터를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하루살이 혹은 나방(moth) 앞에서](KJV, NASB) 놀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 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 줄(이스람 מַדְבָּח)[혹은 ‘그들의 탁월함’(KJV)]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엘리바스는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다 하여도 창조자 하나님보다 의롭고 거룩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욥도 비슷한 말을 했다. 욥기 9:2,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수아 사람 빌닷도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라고 말했다(욥 25:4), 엘리후가 욥에게 노를 발하며 그의 부족을 지적한 것도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욥 32:2).

사람은 실상 하나님 앞에서 의(義)를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이다. 그는 죄성을 가진 누추한 피조물이다. 더욱이,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이며 조만간 죽을 존재이고 그의 삶은 덧없이 짧고 허무하다. 장막 줄이 뽑힌다는 말은 장막을 거둔다는 뜻으로 사람의 몸의 죽음을 묘사한 것이라고 본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사 40:6; 벰전 1:24). 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인생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부족과 허무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천국과 영생만 사모해야 한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행위를 완전케 해야 한다(6절).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요 거기에 소망과 평안이 있다. 잠언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시편 119:1,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잠언 4:18-19,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온전케 하려 하심이다(딤후 3:17). 이사야 48:18,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둘째로, 사람은 범죄하면 망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다. 시편 1:6,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1:6,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잠언 13:9,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잠언 14:11,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로마서 2: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치 말아야 하고 모든 죄를 멀리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우리는 거룩하신 완전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부족, 또 비천과 허무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해야 한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며 연약한 죄성을 가진 존재이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 사람의 행위는 부족하고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모든 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며 그의 말씀대로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이며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음을 알고 겸손해야 한다.

## 5장: 엘리바스--하나님의 징계는 복되다

### 1-16절,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자

[1-2절] 부르짖어 보아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재천사들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키스아 **קִסְיָא**)(**화**(BDB)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멸함이니라).

사람이 왜 분노하고 화를 내는가? 그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지 않고 교만하고 욕심을 부리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다.

그러나 분노와 화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며 그것은 그들에게 해가 될 뿐이다. 그것은 오늘날 의학 상식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사람의 몸의 질병들의 원인이 되며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든다. 또 그것은 사람으로 마귀의 시험에 떨어지기 쉽게 만든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26-27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그 마음에 온유와 겸손, 자족함과 이웃 사랑이 있으면, 분노와 화를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여기에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길도 있다. 즉 사람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하며(잠 3:7-8),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과로하지 말고 적당한 노동이나 운동을 하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되 가급적 소식(小食)을 해야 한다.

[3-5절]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놀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주린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울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미련한 자는 그 자녀들도, 그 재산도 다 복되지 못하다. 사람은 다 미련한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 자신도, 그의 자녀도, 그의 재산도 복되지 못할 것이다.

**[6-7절]** [비록(키 ִי)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아니지만(KJM),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음 같으니라.

모든 사람의 고난과 불행은 타고난 것이다. 그것은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기인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여자에게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선언하셨고 아담에게는 땀 흘리는 수고의 삶을 선언하셨다. 또 땅은 그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창 3장).

사람의 삶은 그 자체가 고난이며 고난으로 충만하다. 욥은 사람의 삶을 힘든 노동이나 품꾼의 날에 비교했고, 또 인생이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말하였다. 욥기 7:1,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차바 נִגְזָז)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나?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나?” 욥기 14:1,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야곱은 자신이 지나온 130년의 시간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했고(창 47:9), 하나님의 종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고백하였다(시 90:10).

사람의 참된 평안과 영생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마 11:28), 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다(요 14:27).

**[8-11절]**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께서는)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킴(일으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들, 기이한 일들을 셀 수 없이 많이 행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로 가득하다. 시편 104:24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우주를 운행하시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신다. 그는 수없이 많은 짐승들과 새들과 물고기들을 기르시고 먹이신다. 시편 104:27은,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라고 말한다.

인간 사회에서의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도 그러하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섭리하신다. 그는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는 요셉의 생애를 섭리하셨고, 모세의 생애를 섭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많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기이한 일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의 기적, 죽음, 부활을 통해 복음을 확증하셨고 신약교회를 세우셨고 자기 백성에게 천국의 산 소망을 주셨다. 그는 오늘날 우리 개인의 영육의 삶도 섭리하신다. 그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12-14절]** 하나님은[께서는] **궤휼한[간교한] 자의 계교를 파하시라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지혜로운] 자로 자기 궤휼[간교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니프탈림 마가다]**[마음이 비뚤어진 자들]의 계교를 패하게 하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간교한 자들,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우나 교활하고 심령이 비뚤어진 자들의 계획과 계교를 다 파하신다. 그는 그것들을 다

헛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시편 9:15는,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라고 말했다. 또 고린도전서 3:19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꾀계에 빠지게 하신다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형들이 아버지 몰래 요셉을 팔아버린 일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는 모르드개와 유다 민족을 죽이려던 하만의 계획도 헛되게 하였고 도리어 그와 그의 동료들이 죽임을 당케 하셨다. 또 그는 은 30에 주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의 계획을 헛되게 하셨다. 유다는 그가 받은 돈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도로 갖다준 후에 목매어 죽었다. 예수께서는 저 악한 유대 지도자들과 또 주님을 배신한 제자에 의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으나 죽은 지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

**[15-16절] 하나님은(께서는) 곤비한(에브론 יִיבֹּוּס)[궁핍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처분이며 또한 긍휼의 처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고난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결코 버려 두지 않으시며 악한 자들의 입과 손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정당한 일 외에는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교만과 욕심과 미움을 버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와 겸손, 의와 선, 사랑과 자족함으로 살아야 한다.

둘째로, 사람은 고난의 삶을 사는 존재이다. 엘리바스는 사람이 고난을 위해 났다고 표현한다. 세상의 고난은 근원적으로 죄에서 왔다. 우리는 오직 사람의 참 평안과 영생이 되신 구주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악을 벌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행치 말고 악인들의 계획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운 섭리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계명대로만 행해야 한다.

## 17-27절, 하나님의 징계는 복되다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표이기 때문이다. 잠언 3:12,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8,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유익이 많다. 우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시편 119:67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말하고, 시편 119:71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한다. 또 히브리서 12:10-11은,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한다.

또 모든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소망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은 죽을병에 걸렸을 때 땅의 것이 그림자같이 헛됨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였다(시 39:6-7).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죽을 고생을 하였을 때 이를 통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고후 1:8-9).

[18-20절] [이]는 하나님은[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고치심이니]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



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救贖)하실 터인즉.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자체로 끝나지 않고 유익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벌을 주고 또 필요한 경우 매를 드는 것은 그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 함이며 매를 때린 후에 상처에 약을 발라준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를 때리시고 고통을 주시지만, 그 고통을 물리쳐주시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징계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개인이나 세상의 최종적 심판은 무서운 것이지만, 현실의 삶의 여정에서 받는 하나님의 징계는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여섯 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섯 번이나 일곱 번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아도 회개하면 구원해주시고 재앙을 거두어주신다. 사람은 부족해서 실수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고쳐주시고 구원해주시다.

주께서는 세 번이나 그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통회자복했을 때 그의 큰 실수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다시 주셨다. 주께서는 그의 부활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믿음 없는 도마에게도 찾아와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셨다. 주께서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서로 용서하라고 교훈하셨다(마 18:22). 이것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기근으로부터 지키시고 건져주신다. 시편 33:18-19는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데도다”라고 말한다.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매를 따라 먹을 것 주시기를 바란다(시 104:27).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자이시다(마 6:26). 그는 까마귀 새끼가 그를 향해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해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욥 38:41).

또 하나님께서는 전쟁 때에도 우리를 칼 권세에서, 즉 오늘날 말로 하면 총알이 빗발치며 포탄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신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23:14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많은 군사들을 동원하여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다고 증거한다.

**[21절] 네가 혐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들의 비난의 말들로부터 피하여 숨게 하신다. 시편 31:20은,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구설(口舌)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라고 말한다. 또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올 때에도 피할 길을 주신다. 시편 91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 성도는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한다고 고백하였다(시 91:1-8).

**[22절]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성도는 또 멸망과 기근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는 어떤 종류의 멸망이든지, 어떤 정도의 심한 굶주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는 우리가 진실히 회개할 때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또 성도는 들짐승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리와 늑대, 또는 멧돼지 등의 들짐승들은 농작물을 해치고 사람도 해친다. 레위기 26:22에 보

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징벌로 들짐승들을 보내실 것을 경고하셨다. 에스겔 선지자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의 방법으로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보내실 것을 예언했다(겔 5:17; 14:21; 33:27). 에스겔 14:21,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重)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害)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들짐승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23절]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밭의 돌들은 땅을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게 만든다. 또 날카롭고 뾰족한 돌들은 밭갈 때 사람의 손과 밭을 상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밭에 돌도 우리와 언약을 맺게 하실 것이다. 또 들짐승도 우리와 화목케 하실 것이다. 들짐승이 우리에게 위협이나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 34:25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대에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24절]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거처’ 혹은 ‘양우리’]를 살피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장막의 평안함이란 가정과 가족들의 평안함, 즉 가족들의 건강과 일용할 양식이 있음과 환경적 평안과 가족들 간의 화목 등을 가리킬 것이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면, 가족들에게 질병과 궁핍과 불화가 찾아올 것이다.

또 양우리를 살피도 잃은 것이 없다는 것은, 양들이 질병에 걸려 죽거나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는 일이 없이 다 건강하다는 뜻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말로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또 가정의 물질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평안한 것을 말한다. 땀흘려 일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리고 물질적 유여함을 유지하는 것

은 하나님의 복이다. 신명기 28:4-5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5-27절]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長壽)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 되어 울리움 같으리라. 불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네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자손들의 수적 번창은 하나님의 복이다. 다산(多産)은 하나님의 복이다(시 127:4-5).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며 상급이다(시 127:3). 또 병약함 속에 겨우 연명함이 아니라 상당한 건강 속에 장수(長壽)함은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다(출 20:12). 잠언 16:31은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했고, 잠언 20:29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이 백발이라고 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며 원숙한 인격자가 되어 임종을 맞는 것은 복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복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이며 유익이 많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케 만들고 믿음 있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달게 받아 거룩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그는 일곱 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기근과 전쟁과 사람들의 비난과 들짐승에게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 그는 마침내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며 물질적 여유를 주시고 장수(長壽)와 다산(多産)의 복을 주신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성화(聖化)를 이루어가야 한다.

## 6장: 욥—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1-7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말하기를] 나의 분한[카아스 *כָּאֲסִי*][고통](NASB, NIV)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들 수 있으면[좋겠도다. 이는 그것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운 것이라[것임이로대]. 그럼으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성급]하였구나(BDB, NASB). [이는]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욥의 고난은 재산의 상실, 자녀들의 죽음, 몸의 병이었다. 이것은 전능자의 화살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었다. 즉 욥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했다. 욥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취하셨다고 고백했었고(1:21),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재앙도 주셨다고 고백했었다(2:10).

그러면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에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편을 회복시키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다시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39에서,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다.

[8-9절] 하나님[께서]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욥은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끊으시고 데려가시기를 간구하였다. 그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며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됨을

알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다.

**[10-13절]** 그러할지라도[나를 죽게 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무자비한, 혹독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카카드 가그] [부인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관대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한가 관대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낫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투쉬이야 가궤] [건전한 지혜, 구원(NASB), 성공(NIV)]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은 혹독한 고통 중에서도 위로를 받고 기뻐한다고 고백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요 기쁨이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은 까닭에 얻은 위로와 기쁨이었다. 시편 119편의 저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라고 고백하였다(시 119:50, 92). 성도에게는 위로와 기쁨의 비밀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기쁨이다. 사도 바울은 메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가졌고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증거하였다(고후 8:2).

**[14-15절]**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폐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어늘[고난 당하는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어늘, 그는(그 친구는) 전능자 경외하기를 폐하도대(KJV).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 [거짓되이 행함]이 시냇물의 마음 같고 개울의 잣음 같구나.

욥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으나 그를 위로하러 온 그의 친구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폐한 자와 같고(KJV, Poole), 마치 우기(雨期) 외에는 말라 있는 시내(와디 wadi라고 부름)와 같다.

**[16-23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취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때를 지은 객들이 시

넷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그 길들은 굽어지고 없어지는데  
대(KJV, NASB) 데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  
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바라던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  
고 낙심하느니라.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  
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  
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救贖)하라 하더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일진대 고난 당하는 친구를  
동정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상대방의 마음과 그의 고통스런 처지를  
이해하고 같은 마음과 감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교훈하였고(엡 4:32),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같은 감정을 가지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교훈했다(벧전 3:8). 그러나 욥의 친구들  
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우리도 이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24-27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  
리라.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  
함이뇨?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  
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벼를 매매할 자로구나.

욥은 자기를 향한 자기 친구들의 책망이 잘못된 책망이라고 말한  
다. 그는 남의 허물을 구체적으로 지적함이 없는, 단지 추측만 가지고  
하는 막연한 책망은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고 말한다. 책망은 확실한 잘못에 근거해야  
한다. 또 그는 남의 말꼬리나 잡는 책망도 잘못이라고 한다. 절망하는  
자의 말은 바람 같은데 그 말꼬리나 잡고 책망하는 것은 무의미하  
고 한다. 또 그는 그들의 책망이 동정심이 없는 책망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너희는 고아를 제비뽑으며 너희 벼를 매매할 자”라고 말한다.

우리가 남을 책망하려면 그의 허물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지적하  
며 책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상대방의 말꼬리나 잡는 자가

되지 말고 그의 말의 중심내용에 대해 논하며 잘못된 점을 책망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의 책망은 동정심을 가진 책망이어야 할 것이다.

**[28-30절]**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궤홀[액]을 분변치 못하랴.

욥은 자기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확신하며 말한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에서 자신이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고백하였다. 고린도전서 4:4,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양심의 판단에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을 때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21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말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섭리자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인 줄 알고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남의 탓으로 돌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롭게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야 한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잠 28:1). 우리는 의를 행함으로 고난 중에도 위로를 얻고 담대히 살아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계산적이고 기회주의적이지 말고, 변함 없는 참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고난 당하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선을 베풀어야 한다. 또 우리는 남에게 잘못된 권면이나 책망을 하지 말고 바른 지식과 동정심을 가지고 권면하고 책망해야 한다.



## 7장: 욥—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1-5절]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차바 נִקְרָב)[전쟁, 힘든 노동(NASB, NIV)]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군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군은 그 샅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아르케 쇠웨 אֶרְבֵּי חֳרָב)[헛된 달들 동안]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같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족은 합창(습瘍)되었다가(라가 נִקְרָב)[곤었다가] 터지는구나.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 모세는 시편 90:10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표현하셨다(마 11:28). 욥은 여러 달 동안 혹독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다. 욥이 고난 당한 기간은 여러 달이었다고 보인다. 세상에 고난이 있는 까닭은 첫 사람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다(창 3:17).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하나님께서는 장차 참 안식의 세계인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롬 14:17).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쉬고 참된 안식을 누린다(히 4:10).

[6-10절] 나의 날은 베들의 복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

명이 한 호흡(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음부(무덤)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천을 짜는 베틀의 북은 설새없이 빠르게 움직인다. 욥은 자신의 날들이 베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표현한다. 인생의 삶은 손살같이 빠르고 흐르는 물같이 신속하다. 모세는 7, 80년의 일생이 날아가듯이 신속히 간다고 말하였다(시 90:10). 한 주간이 빨리 지나가고 한 달이 빠르게 가고 한 해가 빨리 가며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온다.

또 욥은 자신의 삶이 소망이 없고 한 호흡 혹은 바람(루아크 𐤀𐤊𐤁) 같고 복된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의 삶은 짧고 허무하다. 다윗은 시편 39:5에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라고 말했다. 야고보서 4:14는 우리의 생명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했다.

욥은 자신이 조만간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의 삶이 짧고 덧없이 빠르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지상에서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죽음으로 사람의 땅 위의 삶은 끝난다.

[11-16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웅(큰 바다 짐승)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침대)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愁心)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異像)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에첸 𐤀𐤗𐤏) [아마 ‘뼈의 수심’](BDB)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 것이니이다.

욥의 고통은 영혼의 고통이었다. 그는 ‘내 마음의 아픔’ ‘내 영혼의

피로움'에 대해 말한다. 그는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또 믿음이 약해지거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때 생기는 고통이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품는 바다인가, 또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큰 바다 짐승인가라고 묻는다.

또 욥은 침상에서도 평안치 못했다. 침상은 하루하루 피곤한 인생에게 휴식의 공간이지만, 욥은 침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서운 꿈으로 인해 놀라고 이상(異像)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졌다.

이러한 고통 중에서 욥은 죽는 것을 소원하여 말한다. 그는 이미 자기 생일을 저주하였었다(욥 3:1). 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기를 기뻐하시고 그 손을 들어 그를 끊으시기를 사모했었다(욥 6:8-9). 이제 그는 몸의 고통보다 숨이 막혀 죽는 것을 원한다.

**[17-19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파카드 𐤑𐤍𐤔)[살피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마음을 두신다(시 8:4). 사람은 죄가 많고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선대하시는 것이다. 그는 사람을 아침마다, 분초마다 살피시고 시험하신다. 그는 사람을 잠시라도, 침 삼킬 동안이라도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포괄적이다. 그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시 121:4). 그는 우리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우리의 혀의 말을 다 아신다(시 139:2-4).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셨다(마 10:30).

**[20-21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을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MT, KJV) 어찌하여 나로 과녁을 삼으셔서 스스로[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흠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욥은 자신의 부족과 죄를 인정한다. 또 그는 죄의 보상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느낀다.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진심의 순종으로 조금 의로운 삶을 산다. 그러나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치 않으시고 그를 주목 하셔서 그의 심령으로 무겁고 피곤하게 하신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고서는 사람은 자신의 죄들에 대해 아무 해결책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간청한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이 수고로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야 한다(마 11:28; 요 14:27). 천국은 의가 총만한 세계일 뿐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총만한 세계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세월을 아끼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엡 5:15-17)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우리의 성화와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힘써야 한다. 그것은 전도, 참 교회 건립, 바른 신학교 건립, 교회 내의 구제 등의 일이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이며 무익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천국 기업의 귀한 복과 또 심령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적 여유를 늘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을 확신하고 또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과 도덕적 온전함이다. 또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그때에라도 우리는 욥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잘 참고 감당해야 한다.

## 8장: 빌닷—네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1-7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말하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만일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고 주께서 그들을 그 죄의 형벌에 붙이셨다면](KJV),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는]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여 데려가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빌닷의 말은, 욥의 가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여 데려가신다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므로 사람의 죄에 대해 벌하신다. 그는 사람이 범죄할 때 그나 그의 자녀를 죽이기도 하신다. 주께서는 요한계시록 2:23에서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회개해야 한다.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잠언 28:13,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3: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또 회개하는 자는 현재 미약할지라도 장차 심히 창대케 되는 복을 누릴 것이다.

[8-10절]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는]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망하니[없으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같은이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발하지 아니하겠느냐?**

옛시대 사람의 말과, 열조의 터득한 일은 옛길, 검증된 길이며 선한 길이다. 모세도, 신명기 32:7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는 에녹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음성을 들었던 경건한 선조들의 증언과 지혜는 유익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렘 6:16). 옛적 길, 선한 길, 복된 길이 있다. 그것이 옛신앙, 보수신앙이다.

그것은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지향적 태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며 어느 시대에나 가감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시대마다 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리의 변질을 경계해야 한다.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7-8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보수신앙은 귀한 것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15에서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전해진 내용]을 지키라”고 말했다. 성경은 옛날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저장소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수해야 한다.

**[11-13절] 왕골(고메 נֶבֶל)[파피루스 나무]이 진필이 아니고 나졌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

**고 사곡한(카네프 קַנֵּף)[불경건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빌닷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불경건한 자를 파피루스 나무나 갈대에 비교한다. 그것들은 진펄이나 물에서 왕성히 자라지만 아직 푸르릴 때 다른 풀보다 일찍 말라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불경건한 자는 하나님 대신 사람이나 돈이나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데, 사람은 약하고 연약하고 변하며 돈은 있다가 없어지고 세상 권력도 허무하다.

[14-19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벌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감기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악인들의 믿는 것은 거미줄 같다. 또 그들은 한때 왕성한 것 같아도 곧 자취를 찾을 수 없이 뽑히는 식물과 같다. 그래서 이사야 2:22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고, 또 잠언 23:5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했고, 시편 20:7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고 했다. 하나님 대신 사람과 재물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20절] 하나님은(께서는) **순전한(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순전한 사람’이라는 원어(탈 **טָהוֹר**)는 ‘완전한 자, 온전한 자,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뜻이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과 계명대로 사는 자를 가리킨다. 그런 자가 ‘의인’이다. 성경은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을 ‘의로운 자’라고 부른다(창 6:9; 욥 1:1; 겔 14:14, 20).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재앙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도우

시고 건지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시편 34:19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하고, 또 시편 37:25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는 붙들어주지 아니하신다. 그는 악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를 재앙에서 건져주지 않으신다.

**[21-22절] 웃음으로 네 입에, 즐거운 소리로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의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주신다. 시편 47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라고 고백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리라”고 말씀하셨으나, 또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말씀도 주셨다(창 12:3).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축복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나 의인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며 또 그런 악인들의 장막을 없어지게 하실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을 알고 죄를 심각히 여기며 회개하기를 힘써야 한다. 범죄치 않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 범죄하는 부모와 자녀들은 망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이다. 이것은 옛날부터 검증된 진리이다.

둘째로, 우리는 자신의 지식의 제한성을 인정하고 옛길을 주목하고 참조하고 연구하되 성경을 힘써 읽고 연구하고 믿고 행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살고 그와 교제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정직하게,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한다.



## 9장: 욥—하나님과 쟁변할 자 없다

### 1-15절,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순종하자

**[1-2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의 친구들이 악인들이 벌을 받는다고 한 말은 진리이지만, 단지 그 적용이 적절치 않았다. 그러나 욥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고 반문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표준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다 죄인이다. 사람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사 64:6).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롬 3:10).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롬 3:20-22).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는 그 의 안에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 주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마 5:20). 그 의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뿐 아니라, 성도들의 성심의 율법 준행도 포함한다.

**[3-4절]**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께서)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박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라.

사람은 하나님과 변론하려 할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유한한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말로라도 다툴 수 있겠는가? 사람은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실천하려고 힘써야 할 뿐이며, 하나님과 다투며 변론하려 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그는 결코 형통한 자가 될 수 없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와 오는 세상에서 결코 아무 좋은 것도 기대할 수 없다.

**[5-7절]**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옵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하여 노하시면 지진을 주셔서 산을 무너뜨리시고 옵기시며 땅을 움직이실 것이다. 성경은 이 세상 종말의 징조들 중의 하나로 지진을 말한다(마 24:7; 계 16:17-20).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기도 하신다. 그는 낮에도 어두움을 주실 수 있고 역사상 그런 일들이 있었다. 출애굽기 10:23에 보면,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들 중 아홉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을 주셨었다.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었다(마 27:45).

**[8-11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하늘을 홀로 창조하셨고 바다도 주장하신다. 또 그는 북두성(곰 자리)과 삼성(오리온 자리)과 묘성(황소 자리)과 남방의 밀실(밀집된 별 자리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그는 하늘의 별들을 주관하는 자이며 또 기적을 행하는 자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음을 증거한다. 그러나 그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지만 영이시므로 그의 지나가심과 활동들을 사람들이 알 수 없다.

**[12절]**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 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는 천지만물을 주셨

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가족을 주셨다. 그는 우리의 건강을, 재물을,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좋은 환경여건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빼앗으시기도 하신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물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모든 것을 빼앗으실 수 있다. 그는 주로 사람들의 죄를 징벌하실 때, 주신 것을 빼앗으신다. 그러나 간혹 성도들의 훈련을 위해 무엇을 빼앗기도 하신다. 그는 생명을 빼앗아 죽게도 하시고, 가족을 빼앗아 고아와 과부가 되게도 하시고, 건강을 빼앗아 아프게도 하시고, 재물을 빼앗아 가난하게도 하신다. 그는 국가를 빼앗아 나라 없는 설움을 당케도 하시고, 좋은 환경을 빼앗아 고난을 당하게도 하신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는 것, 곧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피하거나 막아낼 수 없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가족을 취하시면 고아와 과부가 될 수밖에 없고 건강을 취하시면 아플 수밖에 없고 재물을 취하시면 가난할 수밖에 없고 나라를 취하시면 방랑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다. 그는 신명기 32:39에서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11에서 하나님을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고 표현하였다.

**[13-15절]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 큰 바다 짐승을 돕는 자들[라합의 동류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라. 기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는 참으로 두렵다. 큰 바다 짐승과 그 동류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할 것이다. 하물며 연약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어떻게 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무어라고 대답하며 변론할 수 있겠는가. 비록 우리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 없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엄위하신 그에게 간구할 수 있을 뿐이다. 옉은 하나님의 엄위하심, 하나님의 능력, 특히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들의 의(義)가 내세울 것이 없는 의(義)임을 인정하고 있다.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한다. 신약성경이 밝히 증거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빌립보서 3:9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했다. 또 히브리서 10:19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한다. 우리의 자량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뿐이며 우리의 담대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이다. 물론 순종의 삶은 더욱 평안과 담대함을 줄 것이다(요일 3:21-22).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위하시며 주권자이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힘이 강하시다. 그는 주권적 섭리자이시며 엄위하신 심판자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를 거역할 수 없고 그와 다룰 수 없다. 그가 빼앗으시면 막을 자가 없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임을 알아야 한다. 옉은 친구들의 말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한다. 사람의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투성이이며 완전하게 의롭지 못하다.

셋째로, 비록 우리의 의가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은 의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말씀들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얻은 의 안에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

## 16-24절,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자

**[16절]** 기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욥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 주께서는 항상 기도 하고 낙망하지 말라고 교훈하셨다(눅 18:1).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교훈했고(살전 5:17)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했다(빌 4:6-7).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며 영적 호흡과 같다.

또 욥은 기도 응답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 기도는 응답을 받는 데 가치가 있다. 시편 65:2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고 증거한다. 주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고(마 7:7-8),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다(요 14:14).

욥의 말은 단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함을 보인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특히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비천한 피조물이며 부족하고 누추한 죄인이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았어도,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생각하면 감히 무엇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겸손과 두려움으로 감사해야 할 뿐이다. 기도 응답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영적 교만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17-19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욥은 자신이 당하는 큰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중에라도 불평하거나 낙심치 말고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를 호출한다’는 원어(요이테니 יוֹצֵאֲנִי)는 ‘나를 호출한다’는 뜻이다(MT, BDB, KJV).<sup>9)</sup> 본문은, 내가 호출을 당하여 엄위하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보인다.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느낀다. 그는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자신이 죄인이며 자신 속에는 사악함과 부패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실상 항변할 자격도, 항변할 담력도 없는 인생임을 고백한다.

우리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고, 또 훈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 베드로전서 4:12-13은,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도 주실 것이다.

**[21절]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내(멸시하리로대).**

“나는 순전하다마는”이라는 말은 문맥상 “나는 순전할지라도”라는 뜻 같다(KJV, NIV). ‘순전함’이라는 원어(탈 מִצְדִּיק)는 ‘완전함, 흠 없음’이라는 뜻이다. 욥은 양심에 가책되는 것이 없는 순전한 삶을 살았다. 욥기 6:10,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

9) 근래의 영어성경들(NASB, NIV)은 한글개역성경처럼 “그를 호출하겠느냐?”고 번역하였다. 이것은 문맥을 따라 원문을 고쳐 읽은 것이라고 본다.

욥기 6:29,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욥기 9:20,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로 에다 나프쉬 לֹא-אֶחְזֹק אֶת-עַצְמִי)라는 원문은 “나는 나의 영혼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그가 지금 왜 이런 처지에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결말이 어떨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든지, 혹은 앞절과 더불어 그가 자신의 온전함과 의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든지, 혹은 뒤따르는 구절과 함께, 고난 중에 심히 피곤해서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며 존중할 힘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욥은 자신의 건강이 회복될 가망성이 없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살고 싶은 의욕도 버리고 있었다. 욥은 욥기 6:8-9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고 말했고, 7:15-16에서는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뼈의 쑤심]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라고 말하였다.

**[22-24절]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홀연히 재앙(쇼트 בִּיָּזָה)[매, 채찍]이 내려 도륙될[사람들을 죽일]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맛사 מַחְסָה)[절망 (BDB, KB, NASB, NIV) 혹은 시련(KJV)]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웠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그가 그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하나님께서서는 때때로 의인에게도 고난과 재앙을 내리신다. 그는 악인에게 주시는 것과 비슷하게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신다. 의인도 자연적 재해나 교통사고 등을 당한다. 또 악한 세상에서 의인이 불의

한 재판을 받고 고통을 받기도 한다. 또 보통은 그 재난이 욥의 경우처럼 일시적이지만, 어떤 경우는 순교의 죽음으로 끝나기도 한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성도에게 닥친 이런 고난은 이해하기 어려운 불행 같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는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큰 일이나 큰 불행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성도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를 믿는 것이, 그리고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며 순수한 믿음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마 16:24).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는 의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복을 주시고,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화를 주신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선악을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시편 58:11은,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값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라고 말하였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 응답을 믿어야 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에 자신이 누추한 존재임을 알고 자랑치 말고 교만치 말고 겸손히 처신해야 한다.

둘째로,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때때로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으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섭리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달게 받고 자신에게 어떤 죄가 없는지 살피고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다 고백하고 버리기를 결심하며 오직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와 힘과 구원을 구해야 한다.



## 25-35절, 고난의 해결책

[25-26절] 나의 날이 체부(遞夫)(루츠 𐎒𐎖𐎗)[달리는 자(NASB, NIV)보다 빠르니 달려가므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욥은 고난 중에 자기의 날들이 빨리 지나간다고 말한다. 그는 그의 날들이 달리는 자보다 빠르며 빠른 배와 같고 먹이를 낚아채려 내려 오는 독수리와 같다고 말한다. 시편 39:5는 사람의 일생을 손 넓이 만 하며 없는 것 같다고 말했고, 시편 90:5는 그것을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했고, 시편 90:10은 사람의 날들이 날아가듯이 신속히 간다고 말했다. 세월은 화살 같고 흐르는 물과 같다. 야고보서 4:14는 우리의 일생을 잠깐 보이라고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했다.

욥은 그 고난의 날들의 빠른 흐름 속에서 행복한 일들을 볼 수 없었다. 사람의 일생은 고난의 길이다. 우리의 세월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우리는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이 사람의 정로(正路)요 복된 삶인가? 에베소서 5:15-17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한다.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다. 성경의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다(잠 1:7; 신 6:5; 요 6:29). 우리는 성경 읽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하신 선한 일들에 힘쓰는 것이다. 그것은 전도와 구제를 포함하여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한 선한 일들에 힘쓰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기 위함이다(딤후 2:14).

[27-28절]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불평)(KJV, NASB, NIV)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 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욥은 고난에 대하여 두 가지 가능한 대책을 언급한다. 하나는 그의 불평을 잇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의 얼굴빛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 즉 마음을 기쁘게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대책은 잠시 도움이 되거나 많이 수련하면 약간은 도움이 될지 모르나, 참된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그것은 불완전한 대책일 뿐이다.

계속 그의 몸이 아프고 계속 그의 환경이 심히 어려운데, 어떻게 그것이 참된 대책이 되겠는가? 그는 그의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무죄(無罪)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안다고 말한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처럼 고통 가운데 버려두실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망각이나 인위적 기쁨은 대책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참된 대책, 완전한 대책은 어디에 있는가? 참되고 완전한 대책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셔야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셔야 그의 고통이 그칠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대책, 완전한 대책이 되신다. 주께서는 친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요 14:27).

**[29-31절] 내가 정죄(定罪)하심을 입을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웃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욥은 본문에서 사람의 죄책(罪責)의 문제를 말한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정죄(定罪)하심이라고 표현한다. 죄인에게 고난의 징벌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벗어나려는 모든 수고, 예를 들어 망각하는

것이나 마음과 얼굴을 기쁘고 즐겁게 가지는 것 등이 헛될 것이다.

또 그는 자신이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 즉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을지라도 주께서 그를 개천에 빠지게 하실 것이라고 표현한다. 그것은 그가 사람의 최악된 본성이 가지는 최악된 생각, 최악된 감정, 최악된 말, 최악된 행위들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 같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깨끗한 옷을 더러운 몸에 입지 않듯이, 그의 옷이라도 그의 최악된 몸을 싫어할 것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사람의 고난의 해결, 사람의 죄책의 해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사람 속이나 사람의 행위나 노력에 있지 않다. 사람의 고난의 해결은 오직 평안의 하나님 안에 있고, 사람의 죄책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 사역에 있다. 주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마 11:28). 구주 예수께서는 고난의 해결자이시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증거했다(롬 3:23-24).

**[32-33절] 하나님은[께서는]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담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재중 재재도 없구나.**

욥은 하나님께서 육신이 아니시고 영이시며 크신 위엄을 지니신 영이시므로 단지 육신적으로 대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위엄 앞에서 감히 대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대질하여 재판할 수 없다’는 말은 ‘함께 법정에 갈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고가 되시고 욥이 피고가 되든지, 아니면 욥이 원고가 되고 하나님께서 피고가 되시든지 간에,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고난의 정당성을 따져볼 수 없으며 또 그 둘 사이에 중재할 자도 없다는 것이다.

[34-35절]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키 로-켄 아노키 임마디 כִּי לֹא-כֵן אָנֹכִי מִיָּמִינִי וְלֹא-כֵן אָנֹכִי מִיָּמִינִי)[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구나](MT, KJV, NASB).

욥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막대기로 그를 치셨고 그를 누르시며 그 위엄으로 그를 두렵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그에게 감히 무슨 말씀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그에게서 떠나게 하시면 그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으나 지금 그의 처지는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욥의 심적 고통과 방황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징계의 막대기를 거두시고 그에게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데 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다. 에베소서 5:15-17,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 . .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둘째로, 고난 중에 망각이나 인위적 기쁨은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참된 해결책이다. 사람의 고난의 해결은 오직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 안에 있다. 그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셔야 평안과 위로를 얻고 그가 우리의 고난을 거두어 주셔야 참 해결이 될 것이다.

셋째로, 욥은 하나님의 정죄하심, 즉 자신의 죄책에 대해 말하는데, 모든 고난의 근본 원인인 사람의 죄책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있다. 실상 우리의 죄책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미 해결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참으며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의 평안과 위로와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요 14:13-14).

## 10장: 욥이 하나님께 탄원함

[1-7]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확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호의의 빛을 비취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이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査實)[실상을 조사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그러나]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자개] 없나이다.

욥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고난 중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는 또 하나님께서 악한 꾀를 품는 악한 자들을 징벌하지 않으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것 같음에 대해 묻고 또 사람은 다른 사람을 외모로 보고 악인을 선인으로 잘못 판단하기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르지 않으신가라고 반문한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삼상 16:7) 사람을 공의로, 완전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달리 사람의 일생의 모든 일을 단숨에, 완전히,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판단하시며, 그래서 자신이 악하지 않음도 아실 것이지만, 자신이 현실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8-12절]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흠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영긴 젖[치즈]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배려하십시오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한다. 하나님

께서는 맨 처음에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게 하시면, 그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출산케 하시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다. 사람의 몸과 신체기관의 시작은 참으로 신비롭다. 영긴 젖 같은 사람의 작은 수정란이 어떻게 정교한 몸과 몸의 각 기관이 되는지 참으로 신비롭다. 사람의 몸은 9,000억개 이상, 아마 수조 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또 사람의 몸에는 200개 이상의 뼈들과 600개 이상의 근육들이 있다고 한다. 또 눈, 귀, 코, 입 외에 약 130개의 많은 기관들이 여러 계통들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위와 식도와 내장과 간 등으로 구성된 소화기 계통, 코와 폐 등으로 구성된 호흡기 계통, 피와 심장 등으로 구성된 순환기 계통, 임파와 호르몬 등으로 구성된 내분비 계통, 뇌, 척추, 신경 등으로 구성된 신경계통, 그리고 비뇨기 계통 등이 그러하다고 한다. 사람의 몸의 구조는 참으로 정교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몸뿐 아니라 생명을 주셔서 살아 움직이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 몸 속에 영을 주셨기 때문이다. 영 혹은 영혼은 사람의 생명 원리이다. 그것이 몸과 결합되면 몸은 산 자가 된다.

**[13-15절]**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니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주목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올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고난의 일들, 현재의 재앙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신다. 욥은 자신이 범죄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 범죄한 적이 있으나 하나님의 죄사함을 믿었음을 보인다. 그러나 지금 그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주셨는지 의문을 가진다. 욥은 자신이 악하면 화를 받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데도 머리를 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에게 많은 환난과 부끄러움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16-19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어[번갈아 가며]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칼리포스 웨차바 אַרְבָּבָּל וְיִפְכָּחִי][교대(交代)들과 군대가(원문), ‘군대가 번갈아 가며]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쩐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욥은 머리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항변하지만, 주께서는 사자처럼 그를 대하시고 그의 기이한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신다. 주께서는 그의 친구들로 번갈아 가며 그를 치게 하시며 그를 향해 진노를 더하시며 군대가 번갈아 가며 치는 것같이 하신다. 의인도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 왜 자신을 태어나게 하셨는가라고 하나님께 질문한다. 그가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며 있어도 없던 것같이 되어 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옮겼을 것이라고 말한다.

**[20-22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으기[조금이라도]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저서 아무 구별[세데르 סֵדֶר][질서]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은 고난 중에 자신의 일생이 짧음을 더욱 느낀다. 다윗도 죽음 앞에서 인생이 손 넓이만큼 되고 없는 것같이 짧다고 고백하였었다(시 39:5). 욥은 이 짧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고난을 그치시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시고 자신을 버려두

서서 조금이라도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소원한다. 이 수고로운 세상에서 참 평안은 오직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욥은 그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즉 그가 죽기 전에 그렇게 해달라고 소원한다. 무덤은 흑암의 땅이며 아무런 질서가 없고 신분의 구별이 없는 곳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경건하고 의롭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참고 악인의 형통에 대해 불평치 말아야 한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며 성경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의 계명대로 바르고 선하게만 살아야 하고 그런 중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악인의 형통을 볼 때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공의의 섭리자 하나님만 믿고 그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물임을 알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는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사 43:7). 이사야 50:10,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 여다.”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셋째로, 우리는 고난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만 참 평안 주심을 알고 그에게 기도해야 한다.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16,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하실지여다.”



## 11장: 소발—욥에게 회개를 촉구함

[1-9절] 나야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말하기를]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픈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바드 73][공허한, 쓸데없는](BDB)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이 내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께서는]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지옥]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밧다 1173][크심]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소발은 욥이 자기의 말이 정결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한다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벌하심이 그의 죄보다 가볍다고 말한다. 그의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았다. 욥의 고난은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었다. 욥기는 그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였다고 증거한다(욥 2:3; 42:7-8).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지혜와 지식을 다 알 수 없고, 그의 섭리의 모든 일들, 그 목적과 그 방법도 알 수 없다. 시편 145:3,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전도서 3: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8:17,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

하리로다.” 고린도전서 1: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로마서 11: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 우리 자신의 지혜로 알 수 없고 오직 성경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영의 깨닫게 하심으로 조금 알 수 있을 뿐이다.

**[10-12절]** 하나님이[께서]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開廷)하시면[법정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나? 하나님은[께서]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허망한 사람이 지혜가 있으리라](NASB).

하나님께서서는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그가 하시는 일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또 그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 특히 사람의 모든 악한 행위들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보응하신다. 그러나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듯이, 허망한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없다.

**[13-14절]**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가다듬고, 준비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때 우리 손에 죄악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멀리 버려야 하고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 우리는 죄악을 멀리해야 한다. 또 우리는 죄와 불의가 우리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 집에서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 아간은 멸망할 물건을 장막 땅속에 묻었다가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하였다(수 7장). 아나니아 부부는 함께 하나님과 사도 베드로를 속이다가 즉사하였다(행 5장).

**[15절]** 그리하면 네가 정녕 흠 없는 얼굴을 듣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

**이 없으리니.**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얼굴을 못 든다. 죄를 짓고도 얼굴을 드는 자가 있다면 그는 뻔뻔한 자이거나 위선적인 자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면 담대함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는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담대함의 비결은 의를 행하는 데 있다. 잠언 28:1,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요한일서 3:21,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죄는 양심에 불안을 가져오지만, 의는 양심에 평안과 담대함을 준다.

**[16-17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사 48:22). 그러나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고 악을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는 곧 환난을 잊을 것이며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다. 지금 환난이 강물처럼 부딪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가 그치면 곧 말라 버리는 골짜기같이 곧 지나갈 것이다.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자는 평안을 얻고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다. 그의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을 것이며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18-19절] 네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침을 드리리라 [킬라 נָחַם, 피엘형[호의를 구하리라].**

성도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성도를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도리어 그에게 호의를 구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20절]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

## 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리라.

‘기운이 끊친다’는 말은 영혼의 호흡이 끊어진다는 뜻으로 죽는다는 말이다. 악한 자는 불경건하고 악하고 회개치 않는 자를 가리킨다.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 재앙을 피하여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한다. 그는 재앙을 피할 수 없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악인은 소망이 없다. 악인의 소망은 절망이다. 그의 소망은 기운의 끊침 곧 죽음 뿐이다. 잠언 10:25,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잠언 24:16,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의 징벌은 우리의 죄보다 가볍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실상 그들의 죄보다 가볍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달게 받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구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서는 무한하시고 또 그의 하시는 모든 일들도 측량할 수 없고 또 그는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정확히 다 아시고 공의로 다스리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작은 지식을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가 주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에게 기도할 때 우리의 손에 죄가 없고 우리의 집에 죄가 없어야 담대함을 얻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품거나 또 우리 집에 죄가 있으면 우리의 양심을 불안하고 두렵게 하실 것이다.

넷째로, 죄는 불행과 재앙의 원인이지만, 죄를 회개하고 의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환안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 12장: 욥—하나님께서서는 악인의 형통을 허용하셨다

[1-5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말하기를]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해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편안한 자는 발이 미끄러지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재앙을 멸시하는구나](NASB).

욥은 자신의 경건과 도덕적 삶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경험을 말하며 또 자신의 의로움과 순전함을 확신한다. 그러나 그는 지금 실족하는 자같이 재앙을 당하고 있고 또 지금 친구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하나님께서]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소발은 앞장에서 욥의 재앙이 그의 죄의 결과이므로 죄를 회개하라고 욥에게 말했는데, 욥은 이제 그의 권면을 반박한다. 모든 재앙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왜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한가라고 반문한다. 과연, 세상에는 악인이 평안하고 형통한 일들이 있다. 시편 73편도 악인의 평안과 형통에 대해 말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시 73:4-5, 12, 14).

[7-8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욥은 악한 자들이 형통하다는 것은 자연계도 아는 진리라고 말한

다. 자연계는 강한 것들이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세계이다. 사자와 호랑이는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고, 독수리나 매는 약한 새들을 잡아먹고, 상어 같은 큰 물고기들은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는다. 그러나 그 강한 것들은 평안한 것 같고 형통한 것 같다.

**[9-12절]**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와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라. 생물들의 혼(네페쉬 נִפְשׁוֹ)(생명)(NASB, NIV)과 인생들의 영(루아크 רִיחַ)(호흡)(KJV, NASB, NIV)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할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 모든 자연계의 현상은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것들이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인간 세계에서 악한 자들이 활개치고 일시적으로 형통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며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들이다.

이런 도덕적 무질서는 창조 세계의 본래의 모습은 아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 세상은 본래의 질서와 도덕성을 잃어버렸고 악화되어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이 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고 천국에서는 완전한 질서와 의가 있을 것이지만,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한 일들이 있다. 이것은 단지 권선징악(勸善懲惡)의 도덕 개념만으로는 이해되거나 설명되지 않는다.

**[13-25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혈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속하도다. 모사(謀士)[고문들]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의 맨 것[결박을 풀어] 푸시며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결박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크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개인들의 생사화복(生死禍福)과 국가들의 흥망성쇠(興亡盛衰)는 다 지혜와 권능, 모략과 명철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 영원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유일하신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그는 그가 창조하신 자연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 나라를 주관하신다. 이사야 45:7,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다니엘 4:17,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또 세상에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 당하는 일들이 있다. 세상에는 사람의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다. 또 세상에는 사람의 능력 밖의 일들, 즉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다 주권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지는 것들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이 세상에는 때때로 악인의 형통함이 있다. 이것은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 허용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도덕적 무질서를 볼 때 당황하거나 낙심치 말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섭리를 믿고 의심치 말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도 또 현재에도 있음을 밝히 증거한다. 의인은 결국 이기며 악인은 결국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교훈대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만 살아야 한다.

## 13장: 욥—너희는 다 쓸데없는 의원들이다

[1-12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거짓말로] 지어내는 자(토펬 נִבְּלִים)[바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 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궤를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낮을 좇으려느냐?[그를 위해 편벽됨을 보이려느냐?](NASB, NIV)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가만히 낮을 좇을진대[편벽됨을 보일진대]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엄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土城)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진리를 바르게 적용해야 한다.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 좋은 말이라도 잘못 적용하면, 그것도, 계속 잘못 적용하면, 그는 거짓말로 바르는 사람이 되고 쓸데없는 의원과 같이 될 것이다. 또 그의 말은 불의하고 거짓된 말이 되고, 남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재 같은 속담’이 되며 흙으로 쌓은 ‘토성’(土城)이 될 것이다.

[13-19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MT, ASV).<sup>10)</sup>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변회)하리라. 사곡한(불경건한) 자는 그의

---

10) 마소라 본문의 읽기이다(ASV는 한글개역처럼 번역함). 그러나 LXX, Syr, Targ, Vg, KJV, NASB, NIV 등은 부정어 로(נֹכַח)를 인칭대명사 로(אֲנִי)로 읽으며,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고 번역한다.



앞에 이르지 못하니 이것이[혹은 ‘그는’](KJV)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의롭다 하심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욥은 친구들의 지적과 책망에 대하여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한다.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줄 아노라.” 그는 앞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었다. 욥기 9:21, “나는 순전하다마는.” 10:7,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또 12:4에서, 그는 자신을 “의롭고 순전한 자”라고 표현하였다.

욥은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실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의뢰하겠다고 말한다. 15절,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또 나는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호하리라.” 또 욥은 자신의 구원을 기대한다. 16절, “불경건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니 이것이[혹은 ‘그는’]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는 자신이 불경건한 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이 되시리라고 믿고 있다.

[20-28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께서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께서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검불을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으며 내 발을 착고[차꼬]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웨후 8:17)[그는](KJV)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알고 그가 그의 손을 자기에 대어 죽게 하지 마시고 그의 위엄으로 자기를 두렵게 하지 마시기

를 간구하면서(21절) 자기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를 알기를 원한다.

욥은 자신의 죄 문제를 생각한다. 그는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며(23절), 또 “주께서 나를 대적하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라고 말한다(26절).

욥은 또한 자신의 미천함을 고백한다. 그는 자신을 ‘날리는 낙엽’과 ‘마른 검불’이라고 표현하고(25절), 자신이 ‘썩는 물건의 후패함’과 같고 ‘좁먹은 의복’ 같다고 말한다(28절). 사람은 병으로 죽음의 문앞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심히 미천한 존재임을 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고 기도 중에 묵상함으로써 바르게 해석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자신에게와 이웃에게 적절하게, 바르게 잘 적용해야 한다. 성도가 비록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적용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와 같고 병도 고치지 못하는 쓸데없는 의원과 같이 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했다(9:21; 10:7; 12:4).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바르고 선하게 살았음이 분명하다. 비록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와 부족이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제사들로 상징된 중보자의 의(義)를 의지하며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았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 고린도전서 4:4,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셋째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난 중에 자신의 부족과 죄를 살피고 자신의 미천함을 깨닫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래 참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범죄치 않고 믿음으로 바르게만 살면 우리는 고난으로부터의 회복을 곧 경험할 것이다.

## 14장: 욥--허무한 인생을 쉬게 하소서

[1-2절]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사는 날이 적다고 말한다. 인생은 짧다. 욥은 또한 사람의 사는 날이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말한다. 모세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했다(시 90:10). 욥은 또한 사람의 삶이 꽃과 같이 쇠한다고 말한다. 이사야 40:6, 8,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욥은 또 사람의 삶이 그림자같이 신속하다고 말한다. 성경은 다른 곳들에서도 사람의 삶이 그림자와 같이 머무름이 없다고 말한다(대상 29:15; 시 39:6; 144:4). 시편 90:10,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3-4절]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심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무한 존재인 사람을 눈을 들어 살피시며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심문하시는가라고 묻는다. 또 그는 사람이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존재이며 이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깨끗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엄격히 심판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든 인류가 다 깨끗지 못하며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성경이 밝히 증거하는 바이다. 창세기 8:21,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레위기 12장에 의하면, 여인은 출산 후 속죄제물로 자신을 속죄해야 하였다. 그것은 사람이 죄 가운데 출생하는 죄인임을 나타낸다. 시편 51:5,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레미야 17: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로마서 3:10-12,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5-6절]**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 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인생을 다 정하셨다. 그는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를 다 정하셨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제한된 날들 동안 우리는 세상에 살고 그 날이 끝나면 죽는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제한을 아무도 넘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주장하셨다(단 5:23).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언제든지 그의 정하신 때에 불러가실 것이다(눅 12:16-20).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품꾼 같은 삶을 사는 자신에게 생이 마칠 때까지 평안 주시기를 소원한다. 평안의 삶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였다(시 4:8).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 평안을 주셨다(요 14:27).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16에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다.

**[7-12절]**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눕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돌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강가 져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찍힐지라도 소망이 있어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를 내지만,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는 것 같다. 시냇물이 말라 버림같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의 때가 있다. 사람은 죽고 마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늘이 없어지고 잠자는 자들이 잠을 깨듯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요 5:28-29).

**[13-15절]** 주[께서는] 나를 음부[무덤]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고난의]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변화가 오기까지](KJV, NASB) 기다렸겠나이다[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사모하시리이다].

욥은 사람의 죽음을 음미하면서도 몸의 변화의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그것은 몸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16-17절]** 그러하온데[‘이는’(KJV, NASB) 혹은 ‘그러나’(ASV)]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세시오며 주께서는]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 이까?(KJV)[주목하지 아니함이니이다](NASB)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욥이 몸의 부활과 영생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세시며 그의 죄를 주목하지 않으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18-22절]** [그러나](NASB) 무너지는 산은 정녕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 아들[아들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욥은 다시 사람의 일생과 죽음을 묘사한다. 그것은 마치 산이 무너져 흩어지고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이 돌을 닳게 하고 넘치

는 물이 땅의 흙을 씻어버림 같다. 사람의 일생이 긴 것 같지만, 결국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옮겨지듯이, 무너지고 옮겨진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신다. 사람은 임종이 가까우면 얼굴빛이 변하여 창백 해지고 그의 아들이 존귀하든지 비천하든지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살이 아프고 자기 마음이 슬플 뿐이다. 사람은 그렇게 임종을 맞는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이 짧고 괴로움이 많고 쇠해지고 신속히 가는 삶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거기에 인생의 참 가치가 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은 더러운 죄인이다. 죄는 사람들의 불행의 근본 원인이며 죄 문제의 해결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사람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음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주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감사해야 한다.

셋째로, 사람의 일생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길임을 알고 죽음을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야 한다. 우리는 죽을 때 죽을 것이지만, 그때까지 충성해야 한다.

넷째로, 사람은 죽지만, 장차 몸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욥은 자신의 변화의 날, 곧 몸의 부활의 날을 소망한다. 신약성경은 우리의 몸의 변화의 날 곧 몸의 부활의 날을 밝히 증거한다. 고린도전서 15:42-44, 51-52,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열매가 되셨다.

## 15장: 엘리바스—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

### 1-16절, 가증하고 부패한 인생

[1-6절]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말하기를]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有助)치 아니한[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默禱)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 여러 말로 잘못된 비난을 쏟아내었다. 그는 욥의 말이 ‘헛된 지식,’ ‘무익한 말,’ ‘불경건한 말,’ ‘간사한 자의 혀’라고 비난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고 욥은 자신의 고난이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라고 변호했던 것인데, 엘리바스는 계속 욥을 정당하지 않게, 그릇되이 비난한 것이다.

참된 성도도 친구들에게 이런 오해를 당할 수 있다. 욥의 고통은 경제적, 가정적,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친구들의 비난까지 곁친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욥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요 욥기의 중심적 교훈이다.

우리는 친구에게 바른 조언을 주어야지 잘못된 조언을 주거나 그를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잠 25:11). 또 잘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주관적 판단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한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전 4:5).

[7-10절] 네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나?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謀議)[은밀한 회의](NASB)를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서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네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바스는 욥의 확고한 지식과 신념에 대해 반박하면서 그 친구들 가운데는 나이 많은 자도 있고 심지어 욥의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으며 나이 많은 자들은 젊은 자보다 지혜와 지식이 더 많은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옳은 말이다.

레위기 19:32는, “너는 쉰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말했다. 욥도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고 말했다(욥 12:12). 르호보암은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의 조언하는 바를 버리고 그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조언을 따라 포박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며 행함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을 초래하였다(왕상 12:6-20).

그러나 진리의 지식과 바른 판단력은 반드시 연령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시편 119:100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가 노인보다 더 명철하다고 말했다. 주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다(마 11:25).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나이 많고 세상 경험도 많은 자들이었지만, 그 심령이 무지하고 완고하고 부패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게 하였다.

**[11-13절] 하나님의 위로와 네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네가 어찌 작다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마음에 끌리며 네 눈을 번쩍여 네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네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하나님의 위로와 네게 온유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친구들이 욥에게 한 충고들, 즉 그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 엘리바스는 자기들의 충고를 하나님의 위로와 온유한 말씀이라고 말하며 욥이 왜 그것들을 무시하느냐고 꾸짖는다. 그러나 사실상 욥의 친구들의 충고들은 하나님의 위로나 온유한 말씀이 아니었다.



또 ‘네 눈을 번쩍여’라는 표현은 불쾌하고 적대적인 마음을 눈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는 욥이 그런 눈빛을 하면서 그의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의 입으로 말들을 낸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상 욥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친구들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마음이 상하였던 것뿐이다. 욥의 말은 친구들을 반대한 것이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 아니었다. 엘리바스가 욥의 말들을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불경건한 말로 이해한 것은 큰 잘못이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이런 실수를 하게 되고 상대방을 잘못 평가하거나 정죄하게 된다. 다윗은 그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종일 그의 말을 곡해하였다고 말했었다(시 56:5). 또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고 하셨다(요 16:2).

**[14-16절] 사람이 무엇이관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관대 의롭겠느냐? 하나님은[께서는]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不淨)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엘리바스는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존재라고 말한다. 수아 사람 빌닷도 그와 비슷하게 욥기 25:4-6에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하였다. 사람은 그 죄성과 그 결과로 인한 심한 미천함과 불행을 볼 때 가히 벌레와 구더기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전적 부패성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실패에서, 또 사사 시대의 반복된 범죄에서, 또 구약의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서 밝히

증거된 진리이다. 특히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고 선을 행하기에 무능함을 증거하였다(렘 17:9; 13:23).

욥은 절대적 의미에서 자신이 깨끗하고 의롭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 욥은 자신의 죄악됨에 대해 욥기 14:4에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말한 것은 단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만한 어떤 특정한 죄가 없다는 것을 뜻하였다. 평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거리낄 것이 없었다. 엘리바스가 증거한 사람의 부패성은 진리이지만, 그가 그것을 욥에게 적용하려 한 것은 무리하였고 적절치 않았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친구들에게 바른 조언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엘리바스는 욥의 다른 친구들같이 욥에 대해 잘못된 비난을 쏟아냈다. 우리는 남에 관해 잘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잘못된 조언이나 비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바른 성경 지식과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또 오직 사실에 근거하여 사람과 사물을 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고 또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친구들에게 바른 조언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평소에 노인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조언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지켜야 한다. 노인들은 보통 오랜 삶의 경험 속에서 상당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람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깨끗지 못하며 물 마심같이 악을 행하며 심히 부패한 존재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렘 17:9).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충성해야 한다.

### 17-35절,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함

[17-19절]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엘리바스는 지혜자들이 그 열조로부터 받아 숨기지 않고 전해준 것, 곧 사람의 전통적 지혜의 말을 욥에게 말하고자 한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는 말은 그 열조들의 지혜가 외부의 것과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보존되고 전달되어졌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전통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것은 좋은 것도 있으나 좋지 않은 것도 있다. 심지어 교회적 전통도 그러하다. 교회 역사는 교회의 부패를 증거한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떡 먹을 때에 손을 씻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으나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은 소홀히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은 주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그들을 비난하였다. 그때 주께서는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마 15:3-6).

[20-24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미스콜렐 לְחַיָּתוֹ)[고통으로 몸을 뒤틀며] 강포자의 헛수는 작정되었으므로(니츠펬누 נִקְּצָה)[혹은 ‘저장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리운(페카딤 מִיָּדָה)[두려움의, 두려운 일들의](KJV, NASB, NIV)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자신

이 어두운 데서 나오리라고 믿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양식을 위해 방황하며) 이르기를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엘리바스가 전하는 열조들의 지혜의 말은 악인이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다. 악인은 일평생 고통으로 몸을 뒤틀며 강포자는 그 죽음의 날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나 다 작정되어 있다. 악인의 귀에는 두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악인은 자신이 그 환난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믿지 못하며 칼날을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을 것이다. 또 그는 양식이 부족하여 그것을 얻으려 방황하며 재앙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안다. 환난과 고통은 그를 두렵게 하고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이길 것이다. 악인에게 질병, 기근, 전쟁 등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재앙이 있다는 것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이다. 잠언 10:24,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사 48:22; 57:21). 단지, 이 진리가 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25-27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영기었고.

본문은 악인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말한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들며 전능자를 향해 거만하게 행하기 때문이다. ‘교만하여 배반한다’는 원문(이스갓바르 **קָבַח**)은 ‘거만하게 행한다’는 뜻이다(BDB, NASB). 고의적 불경건은 대단히 큰 죄악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선의 근거이시며 이유이시다. 모든 죄는 불경건에서 나온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난다(잠 16:6).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대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의지하며 거기에서 모든 죄가 나온다. 사람이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본문은 또 악인이 목을 굳게 하며 자기 방어물로 무장하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들듯이 대적한다고 표현한다. 27절은 악인이 거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까닭을 말한다. “[이는](원문)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음이니라.” 악인이 거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가 몸이 건강하고 물질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람이 몸이 아프고 물질적 어려움이 있으면 겸손히 하나님을 찾지만, 몸이 건강하고 물질적 여유가 있으면 자기 만족에 빠지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28-30절]** 그는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하였음이니라[거하는도대].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민람 **מַעֲשָׂאֵי**)[소득, 재산]<sup>11)</sup>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떠나리라.

엘리바스는 악인의 보응에 대해 말한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할 것이다. 그가 사는 도시와 성읍이 황폐할 것을 말한다. 또 악인은 비록 지금 부요함을 누리고 상당한 재산과 소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의 부요함은 끝나고 그의 재산은 항상 있지 못하며 그의 소득도 땅에서 쇠하여질 것이다. 즉 그의 경제적 유여함이 끝나고 궁핍이 찾아올 것이라는 뜻이다.

악인은 흑암한 곳 즉 환난과 재앙을 떠나지 못하며 그것이 항상 그

---

11) 원어의 뜻은 분명치 않은 것 같다(BDB, KB). 그러나 사전들이 제안하는 뜻은 ‘소득’(BDB), ‘재산’(Langenscheidt, Holladay)(NIV) 등이다.

를 따라다닐 것이다. 또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그의 자녀들이나 그가 벌여놓은 일들을 쇠잔케 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본다. 그리고 악인은 마침내 하나님의 입김, 곧 그의 진노의 입김으로 멸망하고 말 것이다. 악인의 멸망은 확실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바이다. 그것은 또한 사람이 양심으로 느끼는 바이며 또 삶 속에서 때때로 경험하는 바이다.

**[31-35절]**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를 것인즉 그가 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 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사곡한(카네프 𐤒𐤍𐤐) 불경건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악한 생각을 배고 불의(아웬 𐤁𐤍) 헛된 것을 낳으며 마음에 궤휼(거짓)을 예비한다 하였느니라[예비하느니라].

엘리바스는 계속 악인의 보응에 대해 말한다. 본문은 악인이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다가 허망한 결과를 당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가 가졌다고 생각한 것은 결국 다 공허해질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다. 만일 그가 처음부터 그것의 헛됨을 깨달았다면 그는 세상 것들에 대한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크게 여기며 사모하였을 것이다.

악인은 ‘그의 날’ 곧 그의 번창하고 성공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 곧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자녀들이나 그가 벌여놓은 일들은 잘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익지 않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고 감람나무에서 감람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을 것이다. 악인은 잘되는 것 같다가 멸망할 것이다.

악인들은 불경건하고 뇌물을 받는 자들인데 결실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복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또 그들의 장막, 그들의 집과 가정은 불탈 것이다. 그들은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헛된 것을 행하며 또 거짓된 것을 마음에 준비할 뿐이다. 의인과 악인

의 삶은 판연히 다르고, 악인은 공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람의 전통들은 완전치 못하다. 그것은 사람이 부족과 실수가 많고 불완전한 만큼 불완전하다. 심지어 교회의 전통도 완전치 못하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규칙은 오직 신구약성경뿐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하다(시 19:7-8).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전통이나 교회의 전통을 너무 중시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오직 성경말씀만 굳게 지켜야 한다(살후 2:15).

둘째로,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 악인에게는 질병, 기근, 전쟁 등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재앙이 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이사야 48:22,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구원 얻은 우리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알고 악인에게 고통과 두려운 일이 따름을 알고, 모든 악을 버리고 의와 선만 행해야 한다.

셋째로, 악인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게 행하며 목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교만과 거만을 버리고 자신이 피조물이며 늘 부족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과 교훈을 힘써 배우며 실천해야 한다.

넷째로, 악인은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다가 허망한 결과를 당하며 그의 거처하는 곳은 황폐해지고 그의 경제적 유여함도 오래 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보응을 받을 것이며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산업은 쇠잔해지고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악인의 심판 받음과 그의 환경적, 경제적 환난과 재앙을 알고, 그의 현재의 일시적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큰 가치를 두지 말고 모든 욕심과 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과 영생에 큰 가치를 두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야 한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을 누릴 것이며 장차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다(벧후 1:10-11).

## 16장: 욥--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1-3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말하기를]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아말 7:29][고통을 주는] 안위자로구나.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고.

욥은 친구들이 ‘[그를] 번뇌케 하는 혹은 고통을 주는 안위자’라고 표현한다. 그의 친구들은 고난이 죄의 형벌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 생각을 욥에게 줄곧 적용하였다. 그들의 충고는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고통을 더하였다. 죄에 대한 징벌은 하나님의 진리이지만, 욥의 고난은 단순히 신앙 인격의 성숙을 위한 것이었다.

[4-5절]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카사크 7:27][덜었으리라](KJV, NASB, NIV).

욥은 만일 친구들이 자기 같은 처지에 있다면, 자기도 그들을 비난하며 책망하며 그들을 향해 머리를 흔들며 그들을 멸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욥은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상적으로 말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때에도 자신은 입으로 그들을 위로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고난 당하는 우리 형제나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위로하는 것이다.

[6절]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라.

사람이 잠잠히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것이 보통 그의 마음의 근심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이 없이 그의 근심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욥은 심각한 고난 중에서 친구들에게 말해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7절]** 이제 주께서 나를 곤고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괴케[황폐케] 하셨나이다.

‘나의 무리’는 욥의 가족들과 종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곤고케 하셨고 자기 가족들을 황폐케 하셨다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있었다.

**[8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욥은 자신이 심신으로 쇠잔케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며 그의 파리한 모습이 그를 대적하여 증거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가 고난 중에 자신의 죄를 생각하게 된다는 뜻일 것이다. 원문에는 ‘나의 죄’라는 말은 없다(KJV, NASB, NIV). 우리는 욥처럼 고난 중에 “내게 무슨 죄가 있는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9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窘迫)하시며[사탈 𐤑𐤍𐤔𐤕][대적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뵈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욥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그를 찢으시며 대적하신다고 말하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이를 가시고 뵈족한 눈으로 보신다고 말한다. 뵈족한 눈은 미움의 마음을 나타낸다.

**[10-11절]**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께서] 나를 경건치 않은 불의한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입을 벌린다’는 말은 남을 비난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위문하기 위해 와서는 그를 혹독하게 비난했다. 그들은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더 나았다. 이웃 사람들도 그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그를 대적했다. 욥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불의한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다고 말한다. 그것은 욥의 소들과 나귀들과 약대들을 탈취해간 이웃 나라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보인다.

**[12-14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깨뜨리시며] 내 목을

잡아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과녁을 삼으시고 그 살(라브 브)<sup>[공</sup>쉬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꿰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 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욥은 평안히 지냈던 자신에게 닥친 이 혹독한 고난이 주권적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것임을 확실하게 증거한다.

**[15절] 내가 굶은 배를 꿰어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뺨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굶은 배는 꺼칠하고 감촉이 좋지 않다. 구약 성도들은 금식할 때 보통 굶은 배옷을 입었다. 욥이 굶은 배옷을 입은 것은 그의 고통과 탄식을 나타낸다. 또 욥은 자신의 뺨, 곧 힘이 티끌에 더럽혔다고 말한다. 욥은 힘도 없었고 존영도 잃어버렸고 그의 명예도 더러워졌다.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사람이 마음의 고통이 심해 많이 울 때 그의 얼굴도 붉게 상기된다. 또 욥은 자기의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다고 표현한다. 그것은 그가 많이 울어 그 눈이 쇠해졌고 그의 기력도 쇠하여 곧 죽을 사람처럼 눈꺼풀이 감기게 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카마스 마)<sup>[강포, 악행]</sup>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앞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이 악하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또 그는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고 말한다. 그는 고난 중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가 기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믿음을 증거한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 또 욥은 정결한 기도 즉 거짓과 위선의 말로가 아니고 진실과 진심의 말로 한 기도를 하였다.

**[1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쉼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욥은 자신이 남의 피를 흘린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감추지 않기를

원한다. 또 그는 그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그는 고난 중에 낙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19절] 지금 나의 증인(에드 7)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保人)(사헤드 7)이 변호자(KJV, NASB, NIV)이 높은데 계시니라.**

욥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늘에 계신 그의 변호자가 그를 위해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20-22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욥의 친구들은 그를 조롱하고 있으나 욥은 낙망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눈물로 호소한다. “하나님, 저의 중심을 살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바르고 선하게 살고자 애쓴 것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욥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바른 판단을 받기를 원한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친구를 번뇌하게 하고 그에게 고통을 주는 위로자가 되지 말고, 바른 말로 충고하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참된 위로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욥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자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고난의 현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참고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평소에 불의와 강포와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대로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고 또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중에 낙망치 말고 참고 계속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한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증인과 변호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고 판단하실 것을 믿고 그에게만 의탁하며 호소해야 한다. 그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 17장: 욥—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함

[1절]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욥은 기운이 쇠했고 살 날이 다했고 무덤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고 말한다. 중한 병에 걸린 자들이 겪는 심적 상태이며 과정일 것이다.

[2절]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를 조롱하는 자들이 그와 함께 있고 그의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 것은 그를 더욱 피곤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3절]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保主)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재[나를 보증할 재가 누구리이까?

욥은 심신의 큰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보증자가 되셔서 보증물을 주실 것을 기도한다. 자신이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다.

[4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가리에]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친구들의 마음에 아직 깨달음을 주지 않으셨다.

[5절]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본절은 “친구들에게 아침의 말을 하는 자의 자녀들의 눈은 쇠할 것이라”는 뜻이든지(KJV), “노략물의 자기 몫을 위해 친구들을 비난하는 자의 자녀들의 눈은 쇠할 것이라”는 뜻일 것이다(NASB).

[6절] 하나님이[께서] 나로 백성의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건강하고 부요할 때는 그 앞에 친근히 하고 그를 무시하지 못하던 사람도 그가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으니 그를 떠나가고 그를 비웃

고 그를 멸시하는 것은 흔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일일 것이다.

**[7절]**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의 온 지체가 그림자 같다는 말은 그의 사지백체가 쇠해져서 그의 어두어진 눈으로 보기에 그림자같이 희미하다는 뜻이거나, 그의 몸이 쇠해져서 그림자같이 죽어 없어질 것 같다는 뜻일 것이다.

**[8절]**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곡한 재불경건한 자(NASB, NIV)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욥은 자신을 정직자와 무죄자로 표현하고 그를 비방하는 자들을 불경건한 자로 표현하며, 자신이 그들로 인해 분을 낸다고 말한다.

**[9절]** 그러므로[그러나](NASB, NIV)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굳게 붙들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은 자신의 고난의 현실을 인해 놀라고 친구들의 공박에 대해 화와 분이 나지만, 자신을 ‘의인’과 ‘손이 깨끗한 자’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길을 굳게 붙들기를 원하며 점점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참된 성도들의 길이요 큰 위로이다.

**[10-11절]**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의 사모하는 바[모리쉐 ʾמִרְיָהוּ](품은 생각이 다 끊어졌구나).

욥은 친구들이 다 무지하다고 말한다. 또 그는 자신의 날이 지나갔으며 그의 계획과 마음에 품은 생각이 다 끊어졌다고 말한다. 그가 계획하고 그 마음에 생각했던 바는 그의 건강과 행복 등을 포함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오직 죽음 앞에 서 있음을 느끼고 있다.

**[12절]**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 데 가깝대[어두움 앞에서 빛이 가깝대](NASB, NIV) 하는구나.

‘그들’이라는 말은 악인들을 가리키든지(NIV) 아니면 그가 마음에 생각했던 바(‘그것들’)를 가리킬 것이다(Amplified Bible). 후자라면, 내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밤부터 낮까지 계속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 뜻이라면, 후반부의 ‘어두움’은 그의 심적 고통을 가리킬 것이다.

**[13-15절]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배  
풀고 무덤더러 너는 내 아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활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은 이제 죽음을 생각할 뿐이다. 그렇다면, 죽음만 생각하게 되는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사람의 소망이 죽음으로 다 깨어지는  
것이 아닌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심정과 심리는 절망적이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욥은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3절). 그는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호소  
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참고 하나님만 바라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다.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이다. 주께서는 그의 재림 전에 있을 대환난 시대에 대해 말씀하시  
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  
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고(마 24:11-13), 요한계시록은 대환난 때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이 인내와 믿음이라고 교훈하였다(계 13:10).

둘째로, 욥은 의인이 그 길을 굳게 붙든다고 말했다(9절). 참된 성도  
는 때때로 이유 없는 고난에 떨어지고 그런 현실 때문에 놀라고, 또 그  
를 오해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때에도 자기 길을 굳게 붙들고 바르게만 살아야 한다.

셋째로, 욥은 인간적으로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다. 죽음의 문  
앞에 선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런 자를 위로할 말이 무엇  
이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의 복된 소망을 주셨다. 사람에게 참 소망은 하나님께  
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몸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뿐이다.

## 18장: 빌닷—악인의 빛은 꺼진다

[1-2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빌닷이 욥에 대해 ‘너희’라고 말하지만, 그가 말하는 대상은 욥이다. “말을 찾는다”는 원어(키네츠 קִנֵּץ)는 “말에 올무를 놓는다”는 뜻이다(BDB, NASB). 빌닷은 욥이 친구들의 말에 올무를 놓는다고 비난한다. 그는 욥에게 심지어 “깨달으라”고까지 말하며 그를 무지한 자로 몰아댄다. 그러나 그는 욥에게 바르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

[3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不淨)하게 보느냐?

‘부정(不淨)하게 본다’는 원어(타마 תָּמֵא)는 ‘부정(不淨)하게 여긴다’(KJV)는 뜻도 있으나, ‘어리석게 여긴다’(게세니우스, BDB, NASB, NIV)는 뜻이 더 적절해 보인다. 욥은 친구들에 대해 17:4에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했다.

[4절]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라는 원문은 “자신의 분노 중에 자신을 찢는 자”라는 뜻이라고 보인다(KJV).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에 불평하고 대항하여 분노를 품고 자신을 찢고 상하게 만든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선조들은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멸망을 자초하였다(민 11:1; 14:1-3; 20:4; 21:5). 물론 그것은 욥의 경우에는 적절치 않았다.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가 불변적이라는 뜻이라고 보인다.

[5-6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빛과 불꽃은 기쁨과 행복을 가리킬 것이다. 악인의 기쁨과 행복은 사라질 것이다. 그의 가정의 기쁨과 행복도 사라질 것이다. 잠언 13:9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고 말했고, 잠언 24:20도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고 말했다. 악인의 기쁨과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7절] 그 강한 걸음이 곤하여지고 그 베푼 피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악인들은 일시적으로는 그 걸음이 강한 것 같고 그의 베푼 피가 형통하게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의 강한 걸음은 곧 곤하여지고 그는 자기가 베푼 피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8-10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얽는 줄을 밟음이며 그 발뒤꿈치는 창애[뎃]에 치이고 그 몸은 울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악인이 스스로 망하는 까닭은 그의 발이 스스로 자기가 만든 그물에 들어가고 울무의 줄을 밟기 때문이다. 빌닷은 그를 동여맬 줄이 땅에 숨겨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있다고 말한다.

악인은 자기의 울무에 자기가 걸린다. 모르드개를 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 뜰에 높은 장대를 만들었던 하만은 자신이 거기에 달려 죽임을 당하였다(에 7장). 또 다니엘을 모함해 사자굴에 던져 죽게 하려 했던 동료들은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지워 죽었다(단 6장).

**[11-12절]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악인에게는 도적이거나 강도나 무서운 짐승이나 무서운 질병과 큰 사고 같은 무서운 것이 임하여 사방에서 그를 놀래며 그 뒤를 쫓아올 것이다. 잠언 10:24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라고 말한다. 악인의 힘은 기근으로 쇠해질 것이며 그의 곁에는 무서운 재앙이 기다릴 것이다.

**[13절]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라는 원문은 “그것이 그의 피부의 부분들을 먹으리니”라는 뜻이다(MT, NIV). 원문에서 ‘그것’은 그에게 임한 재앙을 말할 것이다. 재앙이 그의 피부의 부분들을 해할 것이며 마침내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14절]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힌다는 말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가족들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뜻이며, 또 ‘무서움의 왕’에게 잡혀간다는 말은 평안 대신에 극한 두려움에 떨어진다는 뜻이라고 보인다.

**[15-16절]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향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찍힐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한다”는 원문은 “그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그의 장막에 거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든지(BDB, NASB), 혹은 “그것[무서움의 왕]이 그 장막에 거하므로 그것이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리라”는 뜻일 것이다(게세니우스). 유향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라는 말은 그 집이 완전히 불태워지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본다. 악인은 그와 그 가정이 일시적으로 번창하는 것 같아도 결국 자신도, 그의 자녀들도 다 멸망할 것이다.

**[17절] 그의 기념[기억]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의인들의 기억은 이 세상에 오래 남고 후세의 사람들에게 전해지지만, 악인들의 기억은 땅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그의 이름은 거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함도 없을 것이다. 멸망의 예(例)로 경계의 교훈을 삼는 것 외에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18-19절] 그는 광명 중에서[광명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악인들은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만 곧 불행

속으로 몰려 들어가며 또 세상에서도 쫓겨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전까지 세상을 적어도 양심 있는 자들에 의해 어느 정도 유지되게 하실 것이며, 악인들이 세상에서 쫓겨나게 하실 것이다.

**[19절]**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재(子孫)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악인은 대를 이을 자들이 없을 것이며 또 그가 부요하였을 때 그의 집에 머물었거나 드나들던 많은 사람들도 다 그를 떠날 것이다.

**[20-21절]**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건강하고 부요하고 행복했던 자가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망할 수 있는지 이전 사람들도, 후대 사람들도 놀랄 것이다. 이와 같이, 불의하고 악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신만 망할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집과 가정도, 가족들까지도 멸망할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믿음을 없고 무지한 자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불평하거나 대항하지 말고 그의 섭리를 항상 긍정하고 순응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의 온전함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선하시다.

둘째로, 악인들은 일시적으로 강하고 형통한 것 같으나, 그들의 빛은 꺼지고 그들의 기쁨과 행복은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하게 살지 말고 오직 경건하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야 한다.

셋째로,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고(사 48:22) 질병, 사고 등의 무서운 것들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기억하고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

## 19장: 욥—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1-6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말하기를]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궁하며 내게 수치 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우리는 바른 충고라도 한두 번 한 후 그가 그것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은 없겠으나 욥은 사람 앞에서는 지적받을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의롭게 살려고 애쓴 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깊은 뜻 가운데 그에게 고난을 주셨고 욥은 친구들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

[7-12절] 내가 포획해울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 판단받음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침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갔구나]. 내 소망을 너무 뺏듯 뺏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고 공의로 판단치 않으시고 그를 향해 진노하시며 그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한다. 그는 이제 자신이 죽은 자와 같고 소망이 없다고 말한다.

[13-17절]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내 형제들에게도 싫어함을 받는구나](BDB, NASB, NIV).

하나님께서서는 욥의 형제들과 친지들과 가까운 친구들로 그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의 집에 우거한 자들과 그의 종들과 여종들까지도 그를 무시하고 박대하며 또 그의 숨결을 그의 아내와 그의 형제들도 싫어하게 하셨다. 욥은 고통에 더하여 이런 무시와 따돌림을 당했다.

**[18-22절]**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겨풀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어린아이들도 그를 업신여겼고 그를 조롱하였고 그의 가까운 친구들은 그를 미워하며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대적이 되었다. 그는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겨풀뿐이었다. 욥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치셨다고 말하면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처럼 그를 핍박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한다. 까닭 없이 고난 받는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김과 위로의 말이다.

**[23-24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본문은, 족장 시대로 추정되는 욥의 시대에 글자와 기록하는 방법이 있었고 책이 있었고 글을 돌에 새기는 일이 있었음을 보인다. 욥의 소원대로 그의 일들은 자세히 욥기라는 책에 기록되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救贖者)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것은, 욥의 구속자(救贖者)시요 우리의 구주이신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활하실 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참으로 놀라운 지식이며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심으로 성취되었다. 요한복음 1:14는, “말씀이 육신이 되

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증거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사실을 알게 하셨다.

**[26절]**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라는 원어(밋베사리 מִבְּשָׂרִי)는 ‘내 육체로부터’(from my flesh)(NASB), ‘내 육체로’(in my flesh)(KJV, NIV), 혹은 ‘내 육체 밖에서’(apart from flesh)(BDB, NIV 난외주)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내 육체로’ ‘내 육체로부터’는 아마 ‘부활하여’라는 뜻을 내포할 것이다. 그것은 부활 신앙과 부활 소망을 보인다. ‘내 육체 밖에서’는 ‘영으로’라는 뜻일 것이다. 즉 이 구절은 욥이 죽어 그의 몸이 썩는다 할지라도 장차 부활하여, 사람이신 하나님 즉 신적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뜻이든지, 영으로 하나님이신 그를 볼 것이라는 뜻일 것이다.

**[27절]** 내가 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눈이 보리라(KJV, NASB, NIV).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칼라 קָלָה)[내 마음이 내 속에서 쇠하는구나(BDB, KJV, NASB).

욥은 자기를 구원하실 구주의 살아계심을 확신한다. 또 그는 자기의 눈이 메시아를 볼 것을 확신하지만, 그러나 그는 또한 지금 마음의 쇠약함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원문에는 ‘그에게’라는 말이 ‘나에게’(비 בִּי)라고 되어 있으나 그것은 말하는 욥의 입장에서 표현된 것이라고 본다. 또 ‘일’은 친구들의 비난이나 욥의 고난을 가리킬 것이다.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고 공박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비난의 근원이나 욥의 고난의 원인이 욥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일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비난이 욥의 잘못 때문, 즉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뜻이거나,

욥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뜻일 것이다.

**[29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은 친구들의 비난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며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의 분노를 ‘칼’ 혹은 ‘칼의 형벌’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한다고 암시한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성도는 때때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지만, 낙심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며 바르게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의롭고 선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둘째로, 성도는 그의 친했던 친구들이나 심지어 그의 가족들이 그를 무시하고 멀리하는 절망적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을 극복하는 길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또 사람에게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두고 그를 의지하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모든 고난의 현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현실임을 알아야 한다.

셋째로, 욥의 구속자(救贖者)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救贖)을 이루셨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히 13:8). 그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가 구속하신 자들을 위해 중보하신다. 로마서 8:34,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는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 불못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확신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그것만 두려워하고 범사에 의와 선을 행해야 한다.

## 20장: 소발--악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1-9절] 나야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말하기를]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깨닫는]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옴으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카네프 𐤒𐤓𐤕][불경건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소발은 욥의 말이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으로 들리지만, 자신의 깨닫는 마음으로 그에게 대답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옛날부터 이 세상에 내려오는 진리를 말한다. 그것은 악인의 이기는 자랑이 잠시이며 불경건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는 진리이다. 그것은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 같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데는 같으나 그들의 결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악인은 일시적으로 그 지위가 심히 높아져서 하늘에 닿고 구름에 미칠지라도 마침내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며, 꿈같이 지나가므로 그를 본 자들이 그를 찾을지라도 볼 수 없을 것이다.

[10-11절]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였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기골[뼈들]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흠에 누우리라.

악인의 자녀들은 궁핍해져서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며 그 자신도 자기가 번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돌려줄 것이며 그가 한때 육체적으로 강건했으나 그 강건함과 기운도 쇠잔해질 것이다.

[12-16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께서]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악인의 악은 자기에게 독이 될 것이다. 그가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않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와 같이 쓰게 되고 독이 될 것이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으로 다시 토할 것이다. 악인의 악은 결국 자신에게 독이 되어 그를 죽게 만들 것이다. 이웃을 미워함이나 속임이나 도적질하거나 탈취하는 것 등이 다 그러할 것이다.

[17-19절] 그는 강 곧 꿀과 영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림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악인은 물질적 복을 누리지 못하며 ‘꿀과 영긴 젖[빠터나 크림]이 흐르는 강’ 즉 복된 환경(출 3:8; 신 32:13-14)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자신이 먹고 즐기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도 자기에게 즐거움과 행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악인이 망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는 일이나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은 일 등의 악행 때문이다.

[20-21절]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편안함이 없으며] 그 기 빼하는 것[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혹은 [재앙으로부터] 건지지)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악인은 편안함이 없고 그 원하는 것을 재앙으로부터 건지지 못하겠고 먹을것도 남지 않고 그의 형통함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22-23절] 풍족할 때에도 곤액[재난]이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께서]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악인은 풍족함을 누릴 때 갑자기 재난들이 닥치며 모든 고통하는 자들도 손을 펴 그에게서 무엇을 취하려 할 것이다. 또 그가 배불리 먹으려 할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비처럼 그에게 내릴 것이다.

[24-25절]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낫활이 쏘아 췌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 난죽 번쩍번쩍하는 축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악인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고, 그 재앙은 그에게 치명적이며 큰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 재앙으로 그는 죽음에 이를 것이다.

[26-29절]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산(家産)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께서]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악인에게는 절망적 어두움이 임하며 하나님의 불이 그를 멸하며 하늘과 땅이 그의 죄악을 드러내며 그와 그의 가산을 없앨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악인은 일시적으로만 형통하여 자랑도 하고 즐거움도 누린다. 우리는 일시적인 세상의 형통과 영광이나 육신적 즐거움을 구하지 말고 또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둘째로, 악인은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며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우리는 돈에 종이 되거나 돈을 사랑하지 말고 특히 불의하게 얻는 소득을 좋아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셋째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공의롭고 철저할 것이다. 악인에게는 평안과 형통이 없을 것이다. 악인의 악행은 매우 공의롭고 철저한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악을 버리고 선만 행해야 한다.

## 21장: 욥—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한가?

[1-7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말하기를]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불평]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焦急][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壽][장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나?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보면, 악인은 죽어야 하고 단명(短命)해야 하고 세력이 소멸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한다. 어떤 때는, 아니, 빈번하게 악인들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고 그 세력도 강하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심판을 지연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 둘째로, 그것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불평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롬 2:4). 셋째로, 그것은 악인을 다른 사람의 심판과 징계의 도구나 최종심판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잠언 16:4,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씩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심판의 도구로 쓰셨다. 그러나 악인들은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8절] 씨가[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악인들은 그 자녀들이 함께 번창하고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날 말로 하면, 그들은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

[9절]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악인에게 가정적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징벌이 없는 경우도 있다. 욥은 욥기 12:6에서도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고 말하였다.

**[10절] 그 수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배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목축업은 옛날 근동 거주민들의 주업이었다. 가축의 출산은 기업 번창의 주된 요소이었다. 본문은 악인의 기업이 쇠하지 않고 번창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말로 하면, 그들이 매월 타는 봉급이 증가하고 그들이 경영하는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11절]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악인들은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여 잘 기르며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건강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 보인다.

**[12절] 그들이 소고(小鼓)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악인들은 작은 북과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즐긴다. 즉 그들은 악기들을 연주하며 노래하고 유희를 즐기는 여유를 가진다.

**[13절]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경각간에’라는 원어(베레가 **עִיָּן**)는 ‘한 순간에, 갑자기, 평안히’라는 뜻이다(BDB). 본절은 악인의 빠르고 고통 없는, 평화로운 죽음을 묘사하는 것 같다(NIV). 시편 73:4는, [악인들에 대하여]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라고 말한다.

사람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이며 이 세상뿐이라면, 악인의 고통 없는 평안한 죽음은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주의 사도들과 초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순교도 당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불멸하고 모든 사람에게에는 죽은 후의 세계가 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지막

심판도 있다. 전도서 12:14는,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했고, 히브리서 9:27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했다. 주께서 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눅 16:19-21)는 죽은 후의 세계가 있고 선악간의 보응이 있음을 잘 교훈하였다.

**[14절] 그러할지라도(와 1)(그러므로)(KJV)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은 건강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배척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한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15절]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악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마음이 도무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불경건이며 무신론이다. 악인들은 불경건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16절]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나라.**

악인들이 평안과 형통을 누리는 것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들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가 가장 근본적 죄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살고 있고 그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다(행 17:25-28). 이론적이든지 실제적이든지, 무신론은 사람의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이다. 악인의 생각과 욥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17-18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케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불러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캄마 기부) [얼마나 자주] 있었느냐?

악인의 행복이 그치고 재앙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진노로 곤고케 되고 폭풍 앞에 불러가는 검불같이 되는 일, 즉 악인에 대한 심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19-20절]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 그 자손들에게가 아니고 악인들 자신에게 직접 징벌하셔서 그들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21-22절] [이는] 그의 달 수가 진하면[그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은[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욥은 만일 악인이 죽고 나면, 그 자손의 불행이 그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그는 또 부언하기를, 그러나 누가 감히 심판자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23-26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평안]하며 안일하고 그 그릇[아탄 기부][들통, 양동이][BDB]에는 젖[우유]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 세상에서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 다 시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전도서 8:11도,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말했다.

[27-28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꾀[메짐마 기부][악한 생각]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왕후[나디브 기부][존귀한 자]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욥의 친구들은 악한 군주나 악인의 집이 다 패망한다고 말했다.

[29-30절]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

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길 가는 사람들도 악인들이 죽은 후 최종적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지만, 그들이 세상에서 평안히 죽는 일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31-34절]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랴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좇으리라.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나? 너희의 대답은 거짓 뿐이니라.

악인들이 살아 있는 동안 그들 앞에서 그들의 행위를 면박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 보응할 수 있는 자도 없겠지만, 악인들은 평안히 무덤에 묻히며 그들의 무덤을 지키는 자까지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런 길을 밟았고 또 그 후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죽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물론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악인의 일시적 외적 번창과 형통을 보고 낙망치 말아야 한다. 악인은 때때로 형통하고 장수하고 자녀들도 잘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물질적 유여함도 누리며 또 평안한 임종도 맞는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불평하거나 낙망치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약 보응의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우리는 무신론적 현세주의를 멀리해야 한다. 세상에 태어나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사람의 참된 가치와 복은 경건과 도덕성에 있다.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가 있다. 천국과 영생이 있고, 지옥과 영벌이 있다. 욥의 삶과 악인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경건과 도덕성을 저버리고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말고 계명대로 의와 선을 행해야 한다.

## 22장: 엘리바스--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1-3절]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할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서는 완전충족하시므로 사람이 그에게 무슨 유익을 드릴 것이 없다. 사람의 의나 행위의 온전함은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욥기 35:7-8,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 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 손해되는 것은 없으나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가져온다.

[4-5절]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시니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나?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극하니라.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재앙이 큼을 볼 때 필경 그의 죄악이 크다고 그릇되게 단정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악들은 분명히 악이다.

[6-9절]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담보로 취하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갈한 재피곤한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거서 사는구나. 네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담보로 취하거나 헐벗은 자의 옷을 벗기는 것은 악한 일이다. 성경은 이웃의 옷을 담보물로 취했다면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라고 가르쳤고(출 22:26) 또 멧돌을 담보물로 취하지 말라고 했다(신 24:6). 그것은 옷 없이 추운 밤을 지내거나 멧돌 없이 식사를 준비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또 피곤한 자에게 물

을 마시우지 않고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것도 악한 일이다. 성경은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고 말했다(잠 25:21). 또 율법에 명령된 대로(신 15장) 구제하지 않는 것도 악한 일이다. 권세자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존귀한 자에게 거기에 살게 배려하면서도, 과부는 돕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붙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꺾는 것도 악한 일이다.

**[10-11절]** 이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홀연히 너를 침범하며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과 벌을 받을 것이다.

**[12절]** 하나님이[께서]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나?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하늘이 참 높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보다 더 높이 계신다.

**[13-14절]**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께서]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뺨뺨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이것은 엘리바스의 잘못된 추측이었다. 욥은 하나님께 대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엘리바스가 묘사한 사람은 분명히 악인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이 멀리 계셔도 모든 사람의 행동을 다 아시고 뺨뺨한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도 다 아신다. 오늘날 사람들이 올린 수많은 인공위성에도 고성능, 초정밀 카메라가 있어 하늘 높은 곳에서 지구 위의 일들을 상당히 자세히 알아내며, 적외선 카메라는 캄캄한 밤에도 사람과 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식별할 수 있다.

**[15-16절]** 네가 악인의 밭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웠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그 터는 강물에 흘러내려가는도대].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의 밭던 옛적 길을 지키려 한다고 그릇되이 비난한다. 그 길은 죄악된 길 곧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길인데 욥은



그런 길을 걸으려 하지 않았다. 엘리바스는 또 악인들의 터는 강물에 흘러내려간다고 말한다. 악인들은 결국 망한다는 뜻이다.

**[17-18절]**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sup>[께서]</sup>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기를 원한다. 아니, 실상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한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부정한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다. 그들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대상 29:14; 약 1:17).

**[19-20절]**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sup>(이스라엘  $\text{מִתְּיָרֵךְ}$ )</sup>[그들의 풍성함(BDB, NASB)]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의인들이 악인들의 멸망을 본다는 뜻이다. 악인들은 결국 망한다.

**[21-22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sup>친근히 하고 회복하라</sup>.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했다(롬 5:10). 죄인들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된다. 또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여 의와 선을 힘써 행해야 한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믿음과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 누려야 한다. 엘리바스는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고 말한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23-26절]**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네 보배<sup>(베체르  $\text{בְּצֵר}$ )</sup>[금의 원석 등을 진토에 버리고 오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

**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곧 참된 회개이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교훈을 받으며 그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 이요 경건이다. 그러면 병들었던 인격이 새로워지고 불행했던 환경이라도 회복될 것이다. 또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장막 곧 집에서 불의를 멀리해야 한다. 자신이 죄와 불의를 멀리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의 집 곧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도 죄를 멀리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참된 회개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일이다. 또 사람이 세상의 것들을 최고 가치로 품고 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주께서는 누가복음 14:33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이 이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하나님을 참 보화로 깨닫고 모실 수 있다.

**[27-28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네가 값으리라.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취리라.**

사람이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불의를 버리고 물질 사랑을 끊고 하나님을 보화로 삼으면, 그는 기도의 응답을 얻을 것이다. 또 그러면 그는 감사히 서원을 갚게 될 것이다. 죄는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다. 시편 66:18,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사람이 의를 행하면 기도의 응답을 얻을 것이다. 요한일서 3:21-22,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엘리바스는 또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

이 비취리라”고 말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케 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자는 그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29-30절]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성도에게는 낮춤의 고난이 있다. 그에게 때때로 질병, 가난, 원수들, 핍박 등의 고난이 있다. 그러나 시편 34:19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라고 말하였다.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며, 성도의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 즉 고난 중에 있는 자가 건짐을 입을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친근히 하고 그와 화목하고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오직 의롭고 선하게만 살고 이웃을 구제하기를 힘써야 한다. 욥은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악한 자가 아니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세상의 보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보배로 삼으라고 말하지만, 욥은 이미 그런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다. 욥은 하나님과 친근히 지내며 그의 계명대로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고 있었다.

둘째로, 그러면 우리는 건강과 경제적 안정과 가정적, 사회적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약속하신 바이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은 건강과 경제적 안정과 가정적, 사회적 평안을 보장한다.

셋째로, 또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남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다. 믿음과 순종의 삶은 담대함과 기도와 간구의 삶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기도 응답과 형통과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된다.

## 23장: 욥—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1-5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말하기를]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불평이 심하니] 받는 재앙[그의 손](LXX, Syr, NASB, NIV)이 [나의] 탄식보다 중함이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변론]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욥은 극심한 재앙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기를 원하며 또 고난의 이유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고난 중에 낙심치 말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환난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이다. 야고보서 5: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주께서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 낙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교훈하셨다(눅 18장). 그러나 기도는 믿음을 필요로 한다. 믿음이 있어야 고난 중에 낙망치 않고 기도할 수 있다.

[6-7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야심 비 ʾקוּ מִנִּי][내게 힘을(KJV) 혹은 관심을(NASB) 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을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히 벗어나리라.

욥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많으시지만 무조건 그 권능으로 피조물들과 다투며 위협하지는 않으신다. 그는 그에게 나오는 자들을 받으신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사 1:18). 예수께서도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요 6:37).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서 그에게 나오는 자들을 용납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정직한 자들

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8-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섬길 때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이다(요 4:24). 영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나 계신 무한하신 영이시다(렘 23:24).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지금은 보이지 않는 내세의 영광의 천국을 믿고 소망한다(고후 4:18).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베카나니 בְּכִנּוּיָו)[그가 나를 시험하셨으니](BDB)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고 말한다. ‘나의 가는 길’이란 그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 그가 지금도 걷고 있는 길, 또 그가 앞으로 가는 길을 가리킨다.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오해하고 그릇되이 비방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아신다.

또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혹은 그가 나를 시험하셨으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욥의 인격을 단련시키고 계셨다. 환난과 시험은 성도의 인격을 단련시키며 온전케 한다. 로마서 5:3-4,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욥은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그의 당한 환난의 일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공정한 판단을 받기를 원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구들의 비난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를 원하였다. 욥은 이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셨고 단련시키셨기 때문에 자기가 정금 같은 자로 성숙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 같다.

**[11-12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은 자신의 발이 그의 걸음 곧 하나님의 명하신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의 길 곧 하나님의 명하신 교훈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의 걸음’ ‘그의 길’은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가리킨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야 한다. 잠언 6:23은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했고, 시편 119:105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말했다.

욥은 또 그의 입술의 명령 곧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음식 곧 날마다 그에게 필요한 양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고백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양식에 비교하였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일정한 음식을 먹듯이, 우리는 영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야 한다. 주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4:4).

**[13-14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베에카드 **בְּעֵקֶד** [‘한 마음을 가지시니’ (in one mind)(KJV), ‘유일하시니’(unique)(NASB)]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 일정한 뜻을 가진 유일하신 자이시다. 그와 비교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의 뜻을 돌이킬 자도 없다. 그는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다 행하시는 자이시다. 시편 115:3,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는 욥을 향해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15-17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

하는구나. 하나님이[께서]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그러나(NASB, NIV) 나는 어두움 앞에서 끊어지지[죽지] 아니하였고 그가 어두움을 내 얼굴에서 가리지도 아니하셨도다].

지금 욥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또 낙심한다. 그러나 그는 그 재앙의 어두움으로 아직 죽지 않았고 그 재앙의 어두움이 아직 제거되지도 않았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인자하신 그는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신다. 우리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지 못하지만,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는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 그는 우리가 참으로 그를 알고 경외하며 사랑하는지 아닌지 아신다. 실상,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가 우리의 중심을 아시면, 우리는 낙망할 것이 없다.

셋째로,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고난의 시련을 잘 참는 자는 정금 같은 인격으로 나타날 것이다. 고난을 통해 남은 죄성을 더욱 깨닫고 버리는 자는 조금씩 성화할 것이며 순수한 금과 같은 인격자로 성숙될 것이다.

넷째로, 욥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다(11-12절).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계시들의 저장소인 신구약성경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 우리는 매일 성경 읽는 일을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경건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좋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되며(시 1:3), 큰 평안을 얻으며 장애물이 없을 것이며(시 119:165), 우리에게 닥친 모든 현실은 협력하여 선과 성화를 이룰 것이다(롬 8:28).

## 24장: 욥—하나님께서 악인의 심판을 지연하신다

[1절]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시간들을 정하지(차관 123)][감추지, 저장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날들을] 보지 못하고는고?

본문의 ‘시간들’이나 ‘날들’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가리킨다고 보인다.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시간들이 전능자로부터 감추이지 않았으나,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심판의] 날들을 보지 못하는고?”이다.

[2-4절] 어떤 사람은 지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담보로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욥은 악인에 대해 묘사한다.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악한 일이다. 신명기 19:14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네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先人)의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고 말했다. 양떼를 빼앗아 기르는 것이나,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담보로 잡는 것이나,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는 것도 악한 일이다. 시편 68:5는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표현하였고, 신명기 10:18은, “[그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억울함을 갚아주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또 가난한 자들을 동정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5-12절] 그들은 거친 땅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의 남겨 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山中)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므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주리면서 곡식단을 매며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하면서 술들을 밟느니라. 인구 많은 성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 그 불의(티플라 תִּפְלוּ)[보기 흥함(BDB)]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 묘사한다. 세상에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신음하며 부르짖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다. 입을 옷이 없고 겨울에 따뜻한 방이 없고 먹을 음식이 충분히 없고 마실 물이 충분히 없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불의한 일과 그 가난한 자들의 신음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고 그의 심판도 없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형제들 중 하나가 주릴 때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방문하는 것이다(마 25:35-40). 그런 행동이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의 실천이다. 성경은 우리의 원수라도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교훈한다(롬 12:20). 또 이 세상에서 악인에 대한 심판이 시행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은 죽지 않았다.

**[13절]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광명[빛]은 참 지식과 의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다(요일 1:5). ‘빛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빛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빛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지 않는 자들, 곧 십계명을 버리고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 자들을 가리킨다.

**[14-17절]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

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으면서 광명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앎이니라.

욕은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를 예를 들어 말한다. 이들은 다 어두움의 사람들, 곧 어두운 시간에 일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빛을 싫어하고 빛을 두려워한다. 주 예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고 말씀하셨다(요 3:20).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빛된 생활을 해야 한다. 주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마 5:14).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교훈했고(롬 13:13), 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했다(엡 5:8-9).

**[18-21절]**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기뻐하고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무덤]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잉태치 못하므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악인들은 빨리 쇠잔할 것이고 그들의 산업은 저주를 받고 그들은 다시 포도원의 소산을 즐기지 못할 것이다. 범죄자는 곧 죽어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를 낳은 태, 곧 그의 모친도 그를 잊어버리고 벌레가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지 못하고 그는 나무처럼 꺾일 것이다. 악인들은 슬픈 여인들을 동정치 않고 학대했었다.

**[22-23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위하

새[그들에게 안전함을 주셔서]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옛날 영어성경(KJV)은 22절을 “그는 또한 그의 권세로 강한 자들을 이끌도다. 그가 일어나니 아무도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했다. 그러면 그것은 악인들이 다른 동료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은 그 악한 자들을 두려워한다는 뜻일 것이다. 23절도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악인’이라고 보며 그의 동료들이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리지만 그의 눈이 그들의 길에 있다는 뜻 같다.

그러나 근래의 한 영어성경은 “그러나 그는 그의 능력으로 그 강한 자들을 끌어내시도다. 그가 일어나시나 아무도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하였다(NASB). 그러면 22절과 23절의 ‘그’는 하나님을 가리킬 것이다. 한글개역은 후자에 가깝다.

**[24-25절]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凡人)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베임을 입느니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라.**

악인들은 얼마간 평안을 누리나 결국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 악인들은 일시적으로 형통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종적, 공의의 심판이 확실히 있음을 믿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남의 땅의 경계표를 옮기고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와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빈궁한 자를 몰아내는 등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탐심 등의 죄악을 버려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또 그의 계명과 교훈을 따라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남에게 선을 베풀며 구제하기를 힘써야 한다.

## 25-26장: 빌닷과 욥—벌레 같은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

[25:1-3]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말하기를] 하나님은[께서는]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평안]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권능’이라는 원어(히메셀 לְחֵץ)는 ‘다스림, 통치권’을 가리키고, ‘위엄’이라는 원어(파카드 רָמָה)는 ‘두려움’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통치권과 두려움을 가지셨고 땅에 평안을 주신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다.

[4-6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량치[밝지]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고 썩는 존재로 비천해졌다. 사람은 벌레와 같다. 이사야 41:14, “지렁이[벌레] 같은 너 야곱아.” 사람은 허무하고 죄악되다. 이것은 염세주의 사상이 아니고 사실이고 현실이다. 사람은 자신이 피조물이며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해진다. 사람의 존귀함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 곧 참된 지식과 의에 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회복하였으므로 이제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야 한다(창 6:9; 욥 1:1; 단 1:8).

[26:1-4]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말하기를]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뉘 신[누구의 호흡 혹은 영]이 네게서 나왔느냐?

[5-6절] 음령(陰靈)들(레파임 מִיִּצְהָר)[죽은 자들]이 큰 물[바다]과 수족(水族)[거기 거하는 것들]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지옥]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나님께서 땅을 공간에 다셨다는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다. 이것은 오늘날 확인된 사실이지만, 옛날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것은 욥기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임을 보이는 말씀이다.

[8-10절] 물을 뿔뿔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시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구름과 비, 빛과 어두움을 주장하신다. 그는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하늘에 쌓으시고 때를 따라 많은 비를 내리신다. 땅으로부터 100킬로미터 정도까지를 대기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공기의 99퍼센트 이상이 있다고 한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대기권도 네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맨 아래층인 대류권에 구름들이 있지만, 대기권 전체에 땅에서 80킬로미터 높이까지의 공기 중에 평균 3.12퍼센트의 수증기가 있으며, 대기 중에 수증기의 부피는 약 13,000 입방킬로미터, 무게는 약 13조 톤이라고 한다.<sup>12)</sup> 바다와 육지에서 증발하는 수증기 양은 연간 약 519경 톤이며<sup>13)</sup> 이것은 1초 당 약 1,645억 톤이 된다. 이 수증기들은 비와 눈이 되어 땅 위에 내린다. 이런 것을 보면, 궁창 위에 많은 양의 물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1-14절]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기둥이 떨며 놀라시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흥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큰 바다 짐승)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영]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

12) 김영길, 자연과학, 97쪽.

13) 위의 책, 100쪽.

### 그 큰 능력의 우리가 누가 능히 측량하라.

하나님께서서는 하늘의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신다. 또 그는 바다의 흉용한 물결을 일으키게도 하시고 잔잔케 하기도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6절,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 이랴.” 다윗은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였다. 시편 22:6,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뱀방거리요 백성의 조롱 거리니이다.” 하나님께서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부르셨다. 이사야 41:14,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시편 49:12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죽는 존재인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뜻이다. 또 시편 119:119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끼같이 버리신다”고 말했다. 악인은 가치가 없다. 사람의 존귀함과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 즉 경건과 도덕성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그의 계명에 순종함이 없는 자는 실상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고 의롭고 선하게만 살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겪는 고난의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기 때문이다. 시편 37:5-6,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55:22,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3:5-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해야 한다.

## 27장: 욥—악인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

[1-6절] 욥이 또 비사(譬詞)를 들어[그의 이야기를 계속하여](NASB) 가로되[말하기를]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꾀활거짓을 발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욥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바른 말, 진실한 말을 하겠다고 말한다. 의와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덕이지만, 불의와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요 마귀 왕국의 악이다. 사람은 교만과 무지와 욕심 때문에 악하고 거짓된 말을 한다. 그러나 구원 얻은 성도는 모든 악하고 거짓된 말을 버리고 의와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엡 4:25).

욥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다는 친구들의 비난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았고 그 마음이 그를 책망할 일이 없다고 증거하며 자신의 순전함을 말한다. 욥은 앞에서 자신의 순전함을 여러 번 말했었다(욥 6:10; 10:7; 13:18).

물론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의를 이루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 의롭게 살아야 하고 양심적으로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도록 살아야 한다(고전 4:4).

[7-12절]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곡한(카네프 קַנְיָהּ)[불경건한](BDB)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께서]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께서]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의 하

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욥은 악인의 허망함에 대해 증거한다. 불경건한 자가 불의로 이익을 얻었을지라도 그가 죽을 때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주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다(마 16:26). 또 그는 풍년 만난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 농부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 하셨다(눅 12:20). 잠언 14:32는,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지만[그것은 천국의 소망이다], 악인은 환난에서 엎드러진다고 말하였다.

악인은 평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교훈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불러도 그가 응답지 않으실 것이다. 잠언 1:28,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실상, 악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사모하며(시 73:25) 그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살전 5:17) 또 환난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응답을 받는다(시 50:15).

**[13-15절]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यो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열병으로(בַּמַּוֶּטֶת נִפְּגוּ)[죽을 때(KJV, BDB), 전염병 때문에](NASB, NIV, KB) 물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욥은 악인의 받는 보응에 대해 말한다. 악인의 많은 자녀들은 전쟁에서 죽을 것이며 그 후손은 양식에 배부르지 못하고 기근을 당할 것이다. 또 남은 자들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며 그의 과부들은 울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울지 못하는 까닭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이거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기뻐하기 때문이거나, 또는 그들 자신도 그



의 학대 때문에 신음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16-18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쯤의 집 같고 상직군[포도원 지키는 재]의 초막 같을 것이며.

악인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 은을 많이 저축하고 의복도 많이 예비할지라도, 그의 돈과 의복, 곧 그의 재산은 다른 이들에게 돌려질 것이며 그의 집도 허물어질 것이다. 그의 모든 수고는 헛될 것이다.

[19-23절]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KJV)(혹은 ‘다시 그리하지 못할 것이요’(LXX, Syr, NASB, NIV)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 두려움[두려운 일들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 이[께서]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던지시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박장[拍掌]하며[박수치며] 비소[誹笑]하고 [비웃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악인의 삶은 복되지 못할 것이다. 악인은 부자로 살다가 죽을지라도 안식의 세계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두려움과 혹독한 환난이 그에게 닥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끼지 않고 사정없이 치시고 취하여 가실 것이며 사람들도 그를 비웃을 것이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악인은 평소에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그는 환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실 것이다.

둘째로, 악인과 그의 자녀들은 전쟁에서 죽거나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며, 그들의 많은 은과 의복은 다른 이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응은 무섭고 그들의 삶도, 그들의 물질적 부유함도 헛될 것이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고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만 의지하며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야 한다.

## 28장: 읍--지혜는 고귀하다

[1-4절] 은은 나는 광광산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銅)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에(陰翳)[침침한 그림자]와 유암(幽暗)[어두움] 중의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 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금이나 은, 구리나 철은 각각 캐는 광산이 있다. 사람은 캄캄함을 무릅쓰고 매우 깊은 갭도를 파고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곳에 매달려 내려가서 흑암 속에서 금은동철의 광석을 찾고 그런 것들을 캐낸다. 귀중한 것들을 얻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5-11절] 지면은 식물을 내내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사파이어)이 있고 사금(금 모래)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엄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춰었던 것을 밝은 데로 내느니라.

사람은 땅 위에서 식물을 심고 가꾸고 먹을 것을 얻지만,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각종 보석은 땅 속과 돌 가운데 있다.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는 표현은 영감된 과학적 발언이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중심에는 약 5,000도의 뜨거운 불이 있다고 추측한다. 화산이 그 한 증거이다. 땅 속의 각종 금은보석이 있는 곳은 공중의 새들도, 사나운 짐승들도 모르나,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내고 캐어낸다.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은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사람이 소유한 것들 중에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금은보석은 사람이 찾기 쉽지 않으나 노력하여 상당히 찾아내어 얻는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땅 위의 어느 곳에 있고 깊은 바다의 어느 곳에 있는가?

**[15-19절]**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벨의 금이나 귀한 수마노(onyx)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욥은 지혜의 가치가 정금이나 은, 남보석, 수정, 홍보석[루비, 진주]과 황옥보다 참으로 크다고 말한다. 그것은 돈 몇 천만원이나 몇 억 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가치 있다. 잠언 3:13-18도 지혜가 가장 귀하다고 증거했다.

**[20-22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지혜와 명철의 곳은 모든 생물과 공중의 새에게 숨겨져 있다. 그러나 멸망과 사망에 들어간 자들은 지혜에 대해 소문을 들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멸망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보다 심히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 많은 사람들은 헛된 세상 것에 큰 가치, 아니 모든 가치를 두고 살고 있다. 그러나 전도서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증거하였다. 예수께서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다(요 6:27). 사람이 참 지혜의 가치성을 깨닫는다면, 그는 세상의 허무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행하며 살 것이다. 거기에 참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23-28절]** 하나님께서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

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뢰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그때에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지혜가 이 세상의 금은보석보다 가치 있으나 사람이 지혜를 알지 못하지만, 온 세상을 두루 보시고 세상의 땅끝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람의 무게를 다시고 바닷물의 분량을 재실 수 있고 비와 우뢰와 번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곧 온 우주의 창조자시오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길을 아시고 그것이 있는 곳을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보셨고 찾아내셨고 그것을 선포하셨고 굳게 세우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다. 욥의 말은 잠언의 말씀과 같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시작]이며(잠 9:10) 그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임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혜와 지식을 말할 수 없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그를 아는 데서부터 나온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그의 명하신 삶의 규칙이 요약해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며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며, 그렇지 못한 것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이다(잠 8:13).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금은보석보다 가치 있는 지혜를 사모하며 구하고 얻어야 한다. 요한복음 6:27, “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둘째로, 참 지혜는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지혜이며 그렇지 않은 것이 어리석음이다. 그 지혜는 영육의 복과 현세와 내세의 복이 된다. 디모데 전서 4:8,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 29장: 욥—옛날은 복되었다

[1-3절] 욥이 또 비사를 들어[이야기하여]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 이[께서]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같이 되었으면—그때는 그의 등불 이 내 머리에 비취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욥은 지난날들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신다(신 32:10; 시 23:4; 91:1). 욥은 또 지난날들에 하나님의 등불이 그의 머리에 비취었고 그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다고 말한다. ‘그의 등불과 빛’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의 빛이었다. 욥의 과거는 복되었다. 지금 그는 고난 가운데서 그 복된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4절] 나의 강장하던(코레프 קָרַפּ)[추수의 때](BDB)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소드 תִּיב)[친밀함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욥은 과거에 그가 누렸던 영적 복을 회상한다. ‘추수의 때’는 인생의 결실기를 가리킨다고 본다. 욥은 그때 하나님의 우정이 그의 장막 위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리킨다.

[5절] 그때는 전능자가[께서]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므로 욥은 가정적인 행복을 누렸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명의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들은 그 곁에서 잘 자랐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은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6절] 뼈터가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 내었으며.

욥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함의 복을 받았다. 그의 양들과 소들은 수가 많았고 그는 그것들에게서 많은 우유와 뼈터를 얻었다. 또 “반석

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 내었다”는 말은 돌밭 같은 곳에서도 감람나무들이 번성하여 감람유를 풍성하게 산출하였다는 뜻일 것이다. 다시 말해, 욥은 물질적 풍성함과 유여함을 누렸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욥은 가정적, 물질적 복을 누렸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었다. 신명기 28장에 밝히 증거되어 있는 대로, 우리의 영육의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는 만복의 근원이다.

[7-11절]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배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금하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욥은 과거에 소년들뿐 아니라, 노인들과 방백들과 귀인들에게서도 존경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 앞에서 말도 조심했다.

[12-14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 [의복]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였던 까닭은 그가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부르짖는 가난한 자나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져 내었고 망하게 된 자나 과부도 도와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로 인해 기뻐 노래하였다. 선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며 모세의 율법과 잠언과 구약성경 전체에서 강조된 바이다.

[15-17절]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查實)하여 [조사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잇사이에서 검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욥은 자신이 선한 삶을 실천했다고 고백한다. 그는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구원을 위해 애썼다.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은 그

를 존경하였고 그 앞에서 말도 조심하였던 것이다.

**[18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善終)하리라  
[좋은 임종을 맞으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은 것이라.

‘내 보금자리’는 그의 가정을 가리킨다. 날이 모래같이 많다는 것은 장수(長壽)한다는 뜻이다. 욥은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적 행복 속에서 평안히 오래 살다가 생을 마치겠다고 생각하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의 끝이나 내일의 행복과 불행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다.

**[19-20절]** 내 뿌리는 물로 뺏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와지고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었노라.

욥은 자신의 삶을 나무에 비유한다. 그는 자신의 삶이 그 뿌리가 물로 뺏어나가고 그 가지가 밤새도록 이슬에 젖어 충분한 물을 취하는 푸른 나무처럼 복되었다고 말한다. 또 욥은 그의 영광이 더 새로워지고 그의 세력과 힘이 날로 강하여지리라고 생각했다.

물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므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교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평안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뜻은 아무도 모르며 그의 섭리하시는 길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사람은 자신의 내일의 일이나 행복과 불행을 알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다.

**[21-23절]**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욥은 전날에 자신이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욥의 말을 이슬같이, 단비같이 여기며 사모했다. 악인의 말은 악하고 파괴적이지만, 의인의 말은 가치가 있고 남에게 유익을 준다. 잠언은

의인의 혀가 천은(天銀)과 같으며(잠 10:20), 또 지혜로운 자의 혀가 양약 같다고 말한다(잠 12:18). 욥은 그런 혀를 가졌다고 보인다.

**[24-25절]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소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느니라**내가 그들을 보고 웃을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으며 나의 얼굴빛을 무색케 아니하리라(KJV).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軍中)에**〔군대 가운데〕**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욥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웃는 인격이 아니었고, 그들은 욥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즉 그를 무안하게 하지 않았다. 또 욥은 사람들의 길을 택해주었다. 또 그는 왕이 자신의 군대 가운데 거함같이 그들 중에 으뜸으로 앉았고, 또 애곡하는 자들 중에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욥은 그의 고백대로 참으로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경건하고 선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 보인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욥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친근히 함으로써 그의 보호와 기쁨을 누렸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그의 등불이 그의 머리에 비취었고 그의 친밀함이 그의 장막에 있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지식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둘째로, 욥은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 그는 가정적 복(아내와 열 자녀들)을 누렸고 물질적 부유함의 복을 누렸고 또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신분의 복을 누렸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그와 친밀히 교제하는 자는 복을 누린다.

셋째로, 욥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고 고아들과 장애인들을 도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었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이었다. 오늘날 우리도 구제와 선행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넷째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욥처럼 큰 고난을 경험하 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면 그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 30장: 욥—그러나 지금은 고난 중에 있다

[1-8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개들과 함께] 들 만하지 못한[들 만한(NASB)] 자니라. 그들은 장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매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BDB, NASB)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대싸리[대싸리]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무리는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지름으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구멍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그 땅에서 쫓겨난[혹은 '매질을 당한'(BDB, NASB)]] 자니라.

이 세상에는 존귀한 자도 있고 천한 자도 있다. 지식과 인품이 있고 재산도 있고 사회적 신분도 있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지식과 인품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사회적 신분도 없는 자들이 있다. 욥은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이었다. 그는 재산도 많이 있었고 사회적 신분도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재앙으로 병들고 가난해졌을 때, 그는 심히 비천한 상태에 떨어졌다. 그는 지금 심지어 가난한 가정의 젊은이들의 조롱을 받고 있다. 사람의 존귀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 동안이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가?

[9-15절]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 줄[활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케 하시매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뜨리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들어오는 것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니 내 복록[행복]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이전에 존귀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나 병들고 가난해진 욥은 지금 비천한 자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다. 그들은 욥을 조롱하고 미워하며 침 뱉고 있다. 욥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곤고케 하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욥의 발을 밀뜨리고 멸망시킬 길을 쌓고 그의 길을 헐고 재앙을 재촉하며 그에게 달려든다.

세상에는 때때로 의인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은 그런 유의 고난이었다. 로마 군병들은 그의 머리에 가지 면류관을 씌웠고 희롱하며 침 뱉고 갈대로 그 머리를 쳤다(마 27:29-30). 대제사장의 종들은 그를 손바닥으로 때렸다(막 14:65). 시편 22:6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훼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라고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했었다. 사도들도 주리고 목말랐고 헐벗고 매맞았고 정처가 없었다. 바울은 자신들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고 고백하였다(고전 4:9-13).

**[16-23절]**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직역하면, ‘내 영혼이 내 위에 부여지며] **환난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나의 병의](KJV)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께서]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굶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강한 손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폭풍의 소란함 속에](BDB)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이는 주께서 나를 죽게 하시며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실 것을 내가 앎이니이다].

욥은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그의 마음은 물같이 녹았고, 그의 몸은 뼈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않으며, 그의 옷은 추하여졌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진흙에 던지셨고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잔혹히 하셨고 강한 손으로 꺾박하셨다고 말하며 또 그로 바람에 불려가게 하시고 폭풍의 소란함 속에 소멸하게 하시며 그를 죽이려 하신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욥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시편 22편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렀나이다”라고 예언했었다(14-16절).

[24-31절]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베이 'פגו') [פה] 더미에서](NASB)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내 창자가 끓어오르고](KJV)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벌에 찢지 않고 검어진 살을 가지고[슬퍼하며](KJV, NASB)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내 가 죽은 검어져서 떨어져고[벗겨졌고] 내 뼈는 열기(熱氣)로 하여 탔구나. 내 수금(哀곡성(哀哭聲))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哀痛聲)이 되었구나.

본문은 욥이 고난 중에 가진 슬픔을 묘사한다. 그는 과거에 고생하는 자를 위해 울고 빈궁한 자를 위해 근심했었다. 그러나 그에게 큰 슬픔이 왔다. 그는 복을 바랐으나 화가 왔고, 광명 즉 기쁨과 행복을 기다렸으나, 흑암 즉 슬픔과 불행이 왔다. 그의 창자는 지금 끓어오르고 있다. 그는 햇벌에 그을리지 않았으나 살이 검어졌다. 그것은 그의 슬픔 때문이었다. 그는 이리의 형제처럼, 타조의 친구처럼 살고 있다. 그의 살갓은 검어져서 벗겨졌고 그의 뼈는 열기로 인해 탔다. 그의 수금과 비파는 슬픔의 노래, 애통과 애곡의 노래의 악기가 되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슬퍼할 때가 있다. 다윗은 시편에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이다”라고 말했고(시 55:17), 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

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했다(시 56:8).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욥은 천한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으나 천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존귀한 성도이었다.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으며, 사회적 신분이 있는 자가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고, 배운 자가 있고 그러지 못한 자가 있다.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는다. 시편 49:12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외적인 데 있지 않고 내적인 데, 즉 경건과 도덕성에 있다. 우리는 사람의 의미와 가치를 외적인 데 두지 말고 경건과 도덕성에 두어야 한다.

둘째로, 욥의 고난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이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시다. 특히 욥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다. 사도들과 순교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았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하여 담당하였다(골 1:24). 이처럼 의인들도 때때로 고난을 당한다.

셋째로, 우리는 의롭게 행하는 중에 고난을 당하면 욥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참고 견디어야 한다. 야고보서 5:10-11,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베드로전서 2:21,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4:12-13,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 31장: 욥--나는 의롭게 살았다

[1-4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은 처녀에게 주목치 않았다. 마음으로라도 범죄치 않기 위해서 이었다. 그는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감찰하시고 그의 걸음을 다 세신다. 그는 그의 품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아신다. 그는 그것이 깨끗하고 선한지 아니면 불결하고 악한지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것이다.

[5-6절]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궤홀[거짓]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께서] 나의 정직함[순전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헛된 것을 구하고 그 발걸음이 거짓에 빠르지만, 욥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려 자신의 순전함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자만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다. 성도의 담대함은 진실한 순종의 삶에서 나온다.

[7-8절]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길’은 정로(正路) 즉 의의 길을 가리킨다. 욥은 인생의 정로를 지켰고 그 길을 떠나지 않았다. 또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에 빠져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 욥은, 만일 자신이 정로에서 떠났든지 그의 마음이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헛되고 죄악된 것에 빠졌든지 그의 손에 더럽고 죄악된 것이 묻었다면, 그의 심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먹고 그의 거두는 것들이 뿌리까지 뽑힐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과 징벌을 알고 있는 것이다. 욥은, 비록 그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의 정로를 떠나지 않았고 헛되고 죄악된 것을 좇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9-12절]**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죄(重罪)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할 것이니라.

욥은 간음을 큰 죄로 여기며 조심하였다.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리는 것은 이미 마음이 부패되어 은밀한 접촉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다. 성도는 그런 은밀한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성도가 음란죄에 떨어지면 고통스러운 결과를 경험할 것이다. 그는 경제적 파탄을 당하고 그의 처는 남의 종이 되어 남의 멧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거나 다른 남자가 그와 동침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간음죄는 중죄(重罪)이다.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가 다 죽임을 당해야 했다(레 20:10). 모든 죄, 특히 간음의 죄는 불과 같다. 불이 나무나 집이나 물건들을 모두 다 사르듯이, 죄, 특히 간음죄는 복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없앤다. 죄는 불행과 재앙을 가져온다.

**[13-15절]**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국문(심판, 심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랴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드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욥은 종의 사정을 멸시하지 않았다. 종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꾸짖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종이 무엇을 불평하거나 호소할 때 그것을 듣는 것은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만일 그가 종을 멸시했다 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러 일어나 심문하실 때 하나님께 대답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멸시하는 잘못도 범치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욥이나 종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잠 22:2). 한 부모의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 하듯이, 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는 넓은 의미에서 한 형제들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16-23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뚝이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엄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가난한 자나 과부나 고아를 무시하지 않았고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돌아보았고 도왔다. 그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이 없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재앙을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시다(신 10:18; 시 68:5).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다. 잠언 14:31,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붙잡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사도들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힘썼다.

[24-28절]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

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기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욥은 재물을 의지하거나 소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마 6:24). 물질적 부요는 신앙생활에 오히려 방해거리가 된다(마 19:23-24; 딤후 6:9-10). 욥은 해와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해와 달을 보고 ‘손에 입맞추는 것’은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나타낸다. 해와 달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이듯이, 돈 사랑도 우상 숭배이다. 우리는 돈을 사랑치 말고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아야 한다.

[29-30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뿜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욥은 그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고 그가 재앙 당함을 인하여 뿜내지 않았고 원수의 영혼을 저주하지 않았다. 잠언 17:5,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31-32절]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었는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었노라.

욥의 종들은 주인의 고기로 배부르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또 그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않고 그의 집 문을 열어주었다고 증거하였다. 경건은 구제와 선행으로 표현된다.

[33-37절]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아담 אָדָם [아담](KJV, NASB)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었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의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어깨에 메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고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욥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의 멸시를 두려워하여 자기 죄악과 허물을 아담처럼 숨기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담대히 말하며 자기를 송사하는 대적자들과 변론하기를 원한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한다. 의인의 마음은 담대하다(잠 28:1).

**[38-40절]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이랑이 일시에 [함께] 울었는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는가.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쫄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잡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은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나 그 소산에 대해 불법한 일을 하지 않았고 그의 토지가 부르짖어 그를 책망하거나 그의 밭이랑들이 함께 우는 일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정당하게 땅을 샀고 또 그 땅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그는 그 경작을 누구에게 맡겼다면 그에게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였다. 만일 그렇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남의 토지를 빼앗으므로 그로 생명을 잃게 했다면, 그는 자기 밭에서 밀 대신 쫄레가 나고 보리 대신 잡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욥은 처녀를 주목하거나 이웃의 아내에 대해 불결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는 간음을 조심해야 하고, 간음죄에 떨어지면 하나님께 복 받기를 기대할 수 없다.

둘째로, 욥은 사람의 정로를 벗어나 거짓되고 헛되고 죄악된 것을 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된 것을 멀리하고 바르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복된 길이며 평안의 길이다.

셋째로, 욥은 물질적 복을 받았지만 돈을 의지하거나 돈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탐심은 우상숭배이다(골 3:5).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이다(딤후 6:10). 우리는 탐심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로, 욥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에 힘써야 하고 원수가 재앙을 당할 때도 기뻐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

## 32장: 엘리후가 말을 시작함

[1-5절]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므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발하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발함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대[자기를 정당화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발함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 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발하니라.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에 기록된 긴 내용은 엘리후라는 사람의 말이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인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 욥의 친구들과 달리, 그의 판단은 매우 건전하였다고 보인다. 욥의 세 친구들의 대답이 없자, 엘리후는 그들에게 화를 내었다.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를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욥은 자신이 양심에 크게 가책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확신 속에서 자신을 고난 속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에 항의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운 역경에서도 생각로나 말로나 행실로 하나님의 섭리에 불평하거나 항의해서는 안 된다.

또 엘리후가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낸 것은 그들이 욥에게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다. 남을 부당하게 정죄하는 것도 나쁜 일이다. 잠언 17:15는,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와 미워하심을 입느니라”고 말했다.

[6-10절]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말하기를]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영](KJV, NASB, NIV)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大人)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엘리후는 욥이나 그 친구들과 달리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동안 잠잠히 참고 있었고 감히 그의 의견을 말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인생 경험이 많아 젊은이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었다. 노인들이 경건과 도덕성을 구비한다면 아마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게 하라고 교훈하였다(딤후 2:3-4).

그러나 다른 한편,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운 혹은 영감(KJV)이 그에게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높고 반드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노인이라고 반드시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그러므로 잠언 1:7은 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온다고 말했고, 잠언 2:6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했다. 또 시편 119:97-100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자는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고 말하였다.

[11-14절]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함당하도록 하여 보는[할 말을 찾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깨우쳐]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흑사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 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욥이]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깨우치거나 욥의 잘못을 증명하지 못했고 욥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마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로 욥을 책망한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한다.

잠언 10:20-21은,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고 말하고, 잠언 25:11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고 한다. 우리는, 물론, 잘못을 행한 자에게는 충고와 책망의 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잠언 27:5-6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바르게 행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말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14,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15-22절]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으로구나.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내 대답할 뭇을 말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발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낮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엘리후는 나이 많은 다른 이들의 말을 인내하며 들었고 이제 자신이 대답할 뭇을 말하고자 한다. 그는 마치 봉한 포도주같이,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같이 할 말로 가득하다고 말한다. 성도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여 말하는 것이 좋다.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잠 15:28).

엘리후는 또 자신이 사람의 낮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첨의 말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아첨은 악한 일이다. 잠언 26:28,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잠언 29:5,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에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고 말했다(살전 2:5). 그러나 이단자들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그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 자랑하고 이익을 위해 아침한다(유 16).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정당화하므로 또 친구들이 욥의 잘못을 증명치 못하면서 그를 정죄하므로 그들에게 화를 내었다. 우리는 욥처럼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고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끝까지 겸손히 복종해야 하고 잠시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항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 또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범사에 사실에 입각하여 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얻어야 한다. 우리는 성경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지혜자가 되고 또 다른 이에게 조언할 때 스승이나 노인보다 더 나은 조언을 할 수 있다.

셋째로, 우리는 필요한 경우 남에게 유익한 충고를 주고 또 필요한 경우 위로의 말도 주되 신중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14,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우리는 잘못 행하는 자들에게는 적절한 충고를 주어야 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남에게 충고나 위로를 줄 때 신중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고 성경의 교훈에 근거하고 이성과 양심에 따라 신중히 말해야 하고 아침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33장: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리지 않으심

[1-7절]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히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영께서]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살게 하시느니라]. 네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흑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보라]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엘리후는 욥에게 자기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자기가 아는 바를 진실하게 말하겠다고 말한다.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항상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엘리후는 자신이 욥보다 나은 것처럼 높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그는 허풍이나 허세를 품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말하기를 원한다. 성도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말해야 한다.

[8-12절] 네가 실로 나의 듣는 데 말하였고 나는 네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 [차꼬]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욥은 자신이 깨끗하고 죄가 없으며 허물과 불의도 없다고 생각했다. 성도가 거리낌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삶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4에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거리낌 없이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욥은 욥기 13:24, 27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고 그의 발을 차꼬에 채우신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이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철저

한 공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다.

[13-18절] 하나님은(께서는)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辯爭)함(다툼)은 어찌이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께서는)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죄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행하시는 일에 대해 다 진술하지 않으신다. 그는 진술하실 의무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그와 변론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오직 잠잠히 순응해야 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제한적이며 하나님의 본심이 고난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것을 안다. 예레미야 애가 3:3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시편 30:5,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 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롬 8:28).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옛 시대에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고 지금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단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감각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확실하게 교훈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사람으로 그 죄를 버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로 파멸의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19-22절] 흑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쭈심의 징계를 만나니 그의 마음[생명]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와지느니라.

엘리후는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각한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에 대해 말한다. 그 사람은 뼈가 늘 쭈시며 입맛이 떨어져 음식 먹기를 싫어하고 살이 빠져 수척하며 보이지 않던 뼈가 튀어나와서 그의 영혼은 죽음의 구렁이에 가까워지기도 한다.

[23-26절]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사자]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보인다면] 하나님이[그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그를 긍휼히 여겨 말하게 하기를] (NASB) 그를 건져서 구렁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하게 하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만일 그에게 단 한 명의 사자라도 해석자로 있다면 그는 그를 긍휼히 여기며 옳은 것 곧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것이다. 그것은, “그를 건져서 구렁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 그의 살은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의 시절을 회복할 것이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그의 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는 건강도 회복될 것이다.

[27-28절]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야쇼르 שׁוֹר][옳은 것을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지사 구렁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야쇼르 שׁוֹר 알 אֵל אֲנֹכִי)라는 원문은 ‘사람들을 보며’(KJV)라는 뜻이라고 보인다.<sup>14)</sup> 본문은 죄의 징계로 극심한 질병의 고통을 받은 그가 사람들을 보며, ‘내가 전에

---

14) 학자들이 원문의 야쇼르 שׁוֹר를 쉬르 שׁוּר(노래하다)에서 나온 אֲנֹכִי로 고쳐서 읽으려 하지만(BDB, KB, NASB), 본문 그대로 두고 שׁוֹר(보다)(KJV)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범죄하여 옳은 것을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죽음의 구렁이에 내려가지 않게 건지셨고 내 생명이 빛 곧 기쁨과 행복을 누리리라'고 간증할 것이라는 뜻일 것이다.

**[29-30절]** 하나님이[께서]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렁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여러 번 이런 징계의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그로 하여금 죽음의 구렁이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빛 즉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다. 엘리후는 '구렁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18, 22, 24, 28, 30절), 그것은 무덤 혹은 지옥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덤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다.

**[31-33절]**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대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엘리후는 모든 일을 정당히 판단하고 말하려 한다. 그는 욥이 옳으면 옳은 것을 인정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는 욥이 할 말이 없으면 자기의 말을 좀더 들어보라고 말한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욥이 자신의 의와 성결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하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불평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행하시는 일들을 다 진술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믿고 순응하고 복종해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겸손과 성결의 덕을 자라게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상당한 평안을 누리다가 평안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 34장: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심

[1-4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말하기를]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변별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세상에는 선과 악, 의와 불의가 섞여 있다. 어리석은 자는 아무 말이나 함부로 말하고(잠 12:18), 또 아무 말이나 다 믿지만(잠 14:15), 지혜로운 자는 선과 악, 의와 불의를 변별하여 듣고 말한다.

[5-9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께서]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거짓말쟁이]가 되었고[내가 나의 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라?](KJV, NASB)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휘방하기[조롱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은 전에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욥 27:2)이라는 표현을 했고, 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궤훈[거짓]을 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다(욥 27:4). 아무리 고난 중에라도 욥이 만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불평하며 조롱했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 악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여러 가지 점에서 유익이 많다. 고난은 우리에게 교정의 유익 뿐만 아니라, 예방의 유익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아무 소용도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10-12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께서]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께서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

**로 하나님은께서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께서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결코 악을 행치 않으시고 불의를 행치 않으신다. 또 그는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보우하신다. 이것은 성경의 기본 진리이다(전 12:14; 롬 2:6). 엘리후의 말은 욥도 하나님의 엄격한 잣대로 보면 흠과 점이 없지 않으므로 그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다.

**[13-15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그가 만일 자기의 결심대로’(NASB) 혹은 ‘자기의 의도하신 대로’(NIV) 그 신[영]과 기운을 거두실진대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흙]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세상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진 자이다. 그가 자기의 뜻대로 그들의 영과 호흡을 거두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과 모든 사람은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권한을 사용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선을 베풀었고, 우리는 그의 선하신 섭리 속에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다.

**[16-17절]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네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께서서는 공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의롭고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의 섭리를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겸손히 또 잠잠히 받아들여야 한다.

**[18-20절]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제함을 당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않으신다. 사람의 외적 영광

과 아름다움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치 있지 않다. 사람은 실상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밤중에 순식간에 죽어가며 심지어 권세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제함을 당하기도 한다.

**[21-25절]** 하나님은[께서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엮으신즉 멸망하나니.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의 악행을 보셨고(창 4:9-10), 동생을 팔아넘긴 요셉의 형들의 악행을 보셨다(창 45:4-8). 시편 139:7-8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지옥](KJV)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라고 말하였다.

세상의 재판은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은 무엇을 바르게 판단할 능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으로 즉시 바른 판단을 하신다. 또 그는 그 바른 판단에 의거하여 그의 능력으로 악한 권력자를 꺾으시고 그를 폐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신다.

**[26-28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無關)히 여김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이르게] 하며 환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악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그를 경외치 않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 하나님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과 그가 명하신 모든 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악인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

심하다. 그 결과, 그들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과 해를 당하고 호소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다.

**[29-30절]**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뵈울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사특한 자(카네프 קַנְיָהוּ) 불경건한 자(BDB, NASB)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陷害)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실 때 아무도 그것을 정죄하지 못한다. 또 그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시면 그의 은혜와 도우심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은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일반이다. 또 그는 공의로우셔서 악한 자가 권력을 잡지 못하게도 하시며 자기 백성들로 그의 압제의 울무에 걸리지 않게도 하신다.

**[31-32절]**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 죄치(패역하게 행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패역함을 깨닫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혹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그에게 아뢰어야 마땅하지만, 악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33절]** 하나님이(께서) 네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네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네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이대로 말하라.

33절은 번역하기 어려워 보이고 영어번역들도 다양하다. ‘싫어하다’는 원어(마이스 סָנַף)는 ‘거절하다, 멸시하다’는 뜻이다. 본절 전반부는 아마, “네가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가 네 생각대로 보응하시겠느냐?”일 것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대로 보응하지 않으심을 말하는 것 같다. 사람의 생각은 불완전하고 부족하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완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34-37절]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 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 구나.

엘리후는 욥이 지혜와 지식이 없이 자신의 죄 위에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더한다고 지적한다. 사람이 고난 중에서도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욥의 부족이 여기에 있다고 보인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욥은 자신이 의롭고 정직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제하셨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비난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과 불의를 행치 않으신다. 그의 지식은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그의 공의의 판단도 완전하다. 엄격한 잣대로 보면, 욥도 흠과 점이 없지 않으며 그의 당한 고난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그의 지혜와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그의 하시는 모든 일을 불평하거나 비난치 말아야 한다.

둘째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며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힘써 지키며 그의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특히 고난 중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살피며 혹시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없는지 반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모든 일을 섭리자 하나님께 맡기며 참고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고 또 패역한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악한 자들처럼 살지 말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오직 그의 모든 계명들에 순종하여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야 한다.

## 35장: 사람의 의는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지 못함

[1-5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말하기를] 네가 이것을 합리[합당]하게 여기느냐?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이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이고 하는구나[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느냐? 이는 네가 이르기를, 주께 유익이 무엇이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이고 함이니라](KJV, NASB).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네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네 위의 높은 궁창(쉬카크 פִּנְאָתָא)(구름)(BDB, KJV, NASB)을 바라보라.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다. 또 자기가 의로워도 하나님에게 유익이 없고 자신에게도 이익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도 잘못이다.

[6-8절]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많은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공의로우시다. 또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실상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께 아무 유익을 드리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거나 자기 자신에게 유익할 뿐이다. 사람의 죄도 하나님께 해를 끼치지 못하고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뿐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징벌하실 것이다.

[9-11절]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놀리므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께서]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참으로 찾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환상을 보았다. 그것은 큰 강 유브라테 주위에서의 세계적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 전쟁에 동원될 군인들은 ‘이만만’ 명 즉 약 2억명이다. 그러나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 은, 구리, 나무, 돌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않았다(계 9:13-21). 그것이 심히 무지하고 죄악된 인생의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의 고난은 그에게 구원과 성화가 될 것이다. 시편 119:67, 71,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12-13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락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께서]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지 못하는 헛된 부르짖음일 뿐이다. 잠언 1:24-33,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피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안전하게]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14절]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께서] 뵈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라.**

본절은 아마, “참으로 네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한다고 하나, 판단이 그 앞에 있으니 너는 그를 간절히 기다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BDB). 성도는 고난 가운데 비록 하나님을 뵈올 수 없으나 그가 모든 일을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믿고 오직 그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15-16절]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파쉬 𐤒𐤓)[어리석음(BDB)]를 심히[심한 어리석음을]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노하여 보응하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 앞에 설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중에 어리석고 헛된 말, 지식 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자신의 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또 그의 섭리를 어리석게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의는 누더기 옷과 같다. 이사야 64:6,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또 우리의 좁은 생각은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오직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모든 일을 판단하실 이가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참으로 찾고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 14절을 다시 번역하면, “판단이 그 앞에 있으니 너는 그를 간절히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섭리하신다. 고린도전서 4:5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교훈하였다.

## 36장: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선하심, 엄위하심

[1-7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말하기를]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네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면देश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완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께서는] 전능하시나[카비르 ַקָּבִיר][능력이 많으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코아크 레브 그 ַחֵזֶק][마음의 힘]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 두지 않으시며 고난 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伸冤]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왕들]과 함께 영원히 위[位]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4절에 ‘지식이 완전한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같다(NASB).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께 지식을 얻어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말하겠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창 18:14) 아무도 멸시치 않으신다. 그는 사람과 대화하시고 언약을 맺으신다. 심지어 그는 아브라함과 변론하셨고 모세와도 변론하셨다(창 18:22-33; 출 32:30-34). 그는 고아를 돌아보시며 도우시는 자이다. 그는 지혜가 많으시다. 그러나 그는 악인들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죽이시며 고난 받는 자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공의의 심판자이다. 또 그는 의인들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왕들과 함께 영원히 보좌에 앉히시고 존귀케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긍휼의 통치자이다.

[8-12절] 혹시 그들이 누설[繆絲](직킴 ַמִּסְתֵּר)[차꼬들, 쇠사슬들](KJV, NASB, NIV)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히 날을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사람들이 죄수들처럼 차꼬들이나 쇠사슬들에 묶이거나 환난의 줄

에 매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셔서 그들의 교만한 행위, 즉 그들이 교만하고 높은 마음으로 처신한 것을 알게 하신다. 사람들의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악을 행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귀를 여셔서 교훈을 듣게 하시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켜 돌아오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다(시 119:67).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히 12:10).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그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자들은 고난에서 건짐을 받고 형통한 날과 즐거운 해를 보낼 것이지만,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결국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13-14절〕** 마음이 사곡한(카네프 קָנֵף)[불경건한](BDB, NASB)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男娼)(케데셀 מִשְׁכָּל)[몸을 파는 남자들]과 함께 망하려니와.

불경건한 자는 온갖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징벌로 어떤 환난의 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치 않고 도우심을 간구치 않는다. 그는 젊어서 죽을 것이며 음란한 자들과 함께 망할 것이다. 불경건은 모든 죄와 멸망의 원인이다.

**〔15-16절〕** 하나님은[께서는]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즘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즘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네 상에 차린 것은 살진 것이 되었으리라.

하나님께서서는 그를 경외하며 곤고할 때 그에게 부르짖는 자들을 그 곤고할 즘에 구원하신다. 시편 34:6,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학대당할 즘에 그들의 귀를 여신다. 시편 119:67,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

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셔서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다. 또 욥의 밭상에 차린 모든 것은 살진 것이 되었을 것이다.

**[17-18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네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으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代贖)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18절은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sup>15)</sup> 아마, “분노가 너를 조소하는 데로 이끌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대속물의 크이 너로 걸길로 가지 못하게 하라”(NASB)는 뜻 같다. 엘리후는 욥이 악인의 벌 같은 고난을 받는 중에 분노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우리는 분노를 조심해야 한다. 시편 37:8,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에베소서 4:26-27,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야고보서 1:20,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19절]** 너의 부르짖음(שוֹא נַפְשׁוֹ)〔‘부르짖음’ 혹은 ‘부요’〕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곤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KJV, “그가 네 부요를 귀중히 여기겠는가? 아니라. 금도 모든 힘의 세력도 아니라.” NASB, “네 부요와 네 힘의 모든 세력이 너를 곤경으로부터 지키겠는가?”

**[20-23절]**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한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

15) ‘징책’이라는 원어(세페크 פָּקֹדֶת)는 어떤 사전은 ‘조롱,’ ‘징책,’ ‘풍부’라는 뜻을 제시하고(BDB), 다른 사전은 뜻을 제시하지 않았다(KB). 영어성경들은 다양하게 번역한다. KJV--“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가 너를 쳐서 데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되면 큰 대속물도 너를 구할 수 없으리라.” ASV--“분노가 일어나 네가 징책을 대적하게 하지 않게 하고 대속물의 크이 너로 걸길로 가지 못하게 하라.” NIV--“아무도 부요로 너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라. 큰 뇌물이 너로 걸길로 가지 못하게 하라.”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네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께서는]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높임을 받으시나니](NASB, NIV)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는 ‘죽는 때’를 가리킨다. 그는 욥에게 비록 고난 중에서도 죽음을 사모하지 말라고 말한다. 또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한다. 그가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네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음이니라”는 구절에 ‘이것’은 앞에서 말한 ‘악’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베풀시고 행할 바를 다 작정하시고 항상 의롭게 행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를 향해 두려움을 가져야 하고 함부로 대항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24-26절]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께서는]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일들을 알고 그를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고 먼 곳에서도 본다.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속사역은 오늘날에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한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은 지극히 크시다. 그의 연령은 계산할 수 없다.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27-33절]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펄[펼쳐짐]과 그의 장막의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개 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豊備]히[풍부히] 주시느니라. 그는 번개 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시 뜻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風雨)[바람과 비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땅과 바다와 호수 등에서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셔서 안개와 구름을 만드시고 또 때를 따라 공중에서 풍부한 비를 땅 위에 내리신다. 또 천둥과 번개도 그가 내리시는 것들이다. 그는 그것으로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패하게도 하셨다. 사무엘상 2:10에 보면, 한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뢰로 그들을 치시리로다”라고 기도했다. 사무엘상 7:10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뢰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멸시치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과 대화하셨고 지혜가 많으시며 악인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고난 받는 의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과 감사를 항상 그에게 돌리며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 사람의 교만과 악을 깨우치시고 교훈하신다. 만일 그들이 그의 교훈을 청종하면 그들이 형통할 것이나, 만일 그들이 그의 교훈을 청종치 않으면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날에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모든 교만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겸손히 그에게 기도해야 한다.

셋째로, 옅은 고난 중에 분노함으로 권능과 위엄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였다. 옅은 의로운 자이었지만, 그 점에서 부족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오래 참아야 하고 분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37장: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크심

[1-5절]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뛰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 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의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 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께서]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1절의 ‘이로 인하여’라는 말은 앞장 끝에서 말한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능력의 일들을 가리킨다. 엘리후는 자연만물과 그 현상들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능력의 일들을 인해 그의 마음이 떨리며 뒹다고 말한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사용하시는 것을 묘사하였다. 그는 천둥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한다. 천둥소리는 온 천하에 퍼지고 번개 빛은 땅끝까지 이른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신다.

[6-13절]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밭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뿅뿅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 빛의 구름을 널리 퍼신즉 구름이 [그의]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니 이는 [그것들이]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 계상[은 세상의 지면에]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금흙 배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고 적은 비와 큰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신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신다는 말은 이런 일들은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말하는 것 같다. 이것은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눈이 내리고 비가 오면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 그 굴에 머문다. 남방에서 태풍 같은 광풍이 밀려오고 북방에서 찬 공기가 닥쳐온다.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열고 물의 넓이가 줄어진다. 그가 습기로 뿔뿔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 빛의 구름을 널리 퍼시니 눈과 비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한다.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들을 온 세상의 지면에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인들이나 악한 땅에 징벌을 내리시는 데 그것들을 쓰기도 하시고 또 눈과 밭을 위해, 그의 공홀 베푸심을 위해 쓰기도 하신다. 그는 천둥과 번개, 적은 비와 큰비, 남방으로부터의 광풍과 북방의 찬 공기, 물의 얕, 비구름 등을 다 주관하시는 것이다.

**[14-22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께서]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 빛으로 번쩍 번쩍하게 하시는지 네가 아느냐? 구름의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데일 חָכָמָה)[지식]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남풍으로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네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네가 아느냐? 네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람자가 있으랴만일 사람이 말한다면, 정녕 그는 삼키울 것이랴(KJV).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묘한 일들을 알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는 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을 하늘에 평평하게 뜨게 하시는지 아느냐, 지식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기묘한 일들을 아느냐, 남풍이 고요히 불 때 옷이 따뜻해지는 까닭을 아느냐, 네가 능히 하나님처럼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고 묻는다. 실상, 사람은 하나님의 기묘한 일들에 대해 무엇을 말할 만한 지식이 없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어두운 비



구름은 때때로 해를 가리지만 바람이 불어 비구름을 지나가게 하면 하늘이 맑아지고 우리는 밝은 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떻게, 왜 구름이 거기에 생기고 바람이 그때에 부는지 모른다.

**[23-24절]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다 측량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가 자신을 알리신 작은 부분과 분량만큼이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지극히 크시고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전능하시고 엄위하시며, 그의 지혜로운 뜻대로 자연만물과 그 현상들을 주관하신다. 그는 구름과 바람과 눈과 비 등을 주관하신다. 12절, “구름이 그의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온 세상의 지면에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적당한 때 그의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욥기 36:26,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시편 145:3,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 . .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바는 그가 자신을 나타내신 지극히 작은 부분뿐이다. 물론 그 지식은 확실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크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셋째로,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본적 마음가짐이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는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 38장: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심

[1-7절]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무지한 말로 이치[뜻, 생각]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랑을 정하였는지[그것을 측량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목공일에 쓰는]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柱礎]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은 그의 위엄과 불쾌함을 나타내시는 것 같다. 욥과 그 친구들은 자신들을 반성하며 두려움과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에차 ᄃᄇᄃᄂ](counsel)[의논, 뜻, 생각]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셨다. 욥의 문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불경건이나 사악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무지와 생각의 부족에서 나온 불평스런 말에 있었다고 보인다.

하나님께서서는 또 그에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셨다. 그가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일을 행하셨다(사 44:24).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드러난 창조 세계의 일들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의 감추인 섭리의 일들에 대해 아는 것처럼 처신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벽 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의어로 쓰였고 그것은 천사들을 가리켰다(욥 1:6).

[8-11절] 바닷물이 태에서 니뿔같이 넘쳐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뵈[포대

개를 만들고 계한(한계를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바닷물이 무더기같이 넘쳐흐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다. 바닷가의 모래 벌판은 바닷물이 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이다. 예레미야 5:22,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界限)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흥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12-15절]**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취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쫓아낸)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 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 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아침을 오게 하신다.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침이 오지 않을 것이다. 새벽빛이 온 땅에, 땅끝까지 순식간에 비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빛이 비치면 땅은 진흙에 도장을 찍은 것같이, 예쁜 옷같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천지만물은 밝은 빛 아래서 각각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을 드러낸다. 또 아침 빛은 악인을 쫓아낸다. 악인은 아침 빛을 싫어하고 어두운 밤을 좋아한다. 악인들에게는 빛이 없다. 악인들은 빛을 미워하고 두려워하며 빛으로부터 피하며 도망친다. 또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빛을 거두신다. 악인에게는 참된 기쁨도 평안도 행복도 없다.

**[16-18절]** 네가 바다 근원(네베크 근원)(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깊은 바다 속에는 아마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다. 노아 홍수 때 ‘큰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고 성경은 말한다(창 7:11). 전문 잠수부(다이버)들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만(보통은 수중 30미터 정도 들어간다

고 함), 그것은 깊은 바다(보통 5-6킬로미터, 최저 약 11킬로미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잠수함도 물의 압력 때문에 아주 깊은 바다 속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특별한 탐사선도 겨우 900미터 정도 내려 간다고 한다. 사람은 바다 속에 대해 지극히 조금 알고 있을 뿐이다.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것을 아시며 그것을 주관하시는 자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또 ‘사망의 문,’ ‘사망의 그늘진 문’에 대해 언급하신다. 그것은 죽음과 무덤을 가리킬 것이나, 혹시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의 문을 가리킬지도 모른다. 사람은 죽음너머의 세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지옥의 문,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간 세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세계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하였었느냐?”라고 물으신다. ‘측량하다’는 원어(히브리어 **קָנַן**)는 ‘지각(知覺)하다, 이해하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광활한 지구의 넓이를 느낄 수 없다. 단지 지구의 크기를 수학적 어렵 계산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19-24절]**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네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네가 아마 알리라. 네가 그때에 났었나니 너의 연수(年數)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흠어지느냐?

우리는 빛의 이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흑암의 처소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또 눈 곳간과 우박 창고를 잘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죄인을 징벌하실 때 사용하신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위해 아모리 다섯 왕들의 연합군과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덩어리 우박들을 내려 여호수아를 도우심으로 아모리인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셨다(수 10:11). 사람은 또 빛이 나뉘는 길을 알지 못한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즉 지구를 일곱 바퀴 반 정도나 도는 속도로 달려 나간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동풍의 길도 파악하기 어렵다.

**[25-30절]**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리의 번개 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거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버지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스니라.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날 때 그것을 주장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천둥과 번개의 길을 내는 자도 그 분뿐이시다. 사람은 비와 이슬방울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지 못하고 수증기가 어떻게 공중의 서리가 되는지 혹은 물이 어떻게 얼음이 되는지 그 이치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물이 섭씨 0도 이하가 되면 언다는 것을 알지만, 왜 그것이 그래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창조 세계는 신비로 가득하다.

**[31-33절]** 네가 묘성을 매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가 열두 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옛날부터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며 별자리들의 이름을 붙였다. ‘묘성(昴星)’은 황소자리 별자리(Pleiades)로 일곱 개의 별들로 되어 있고, ‘삼성(參星)’은 오리온 별자리(Orion)로 세 개의 별들로 되어 있고, ‘북두성(北斗星)’은 큰 곰 별자리를 가리킬 것이다. 사람은 별들을 묶거나 풀 수 없고 때를 따라 그것들을 이끌 수 없다. 거대하고 광활한 우주 공간인 저 하늘에 떠 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 모양들을 이루며 규칙적이게 제자리를 지키는 현상들은 사람이 조금도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34-38절]** 네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티끌이 굳어질 때와 흙덩이가 서로 붙을 때, 누가 하늘의 병을 기울일 수 있느냐?](NASB, NIV).

욥의 목소리가 구름에 도달하기도 어렵겠지만 설령 도달했다 할지라도 구름이 그의 말에 복종치 않을 것이다. 하늘의 번개를 주관하고 그것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은 범죄한 이후 참 지혜를 잃어버렸고 심히 무지하고 허무한 것을 추구하고 사는 상태에 있지만, 확실히 짐승들과는 다르다. 사람에게는 짐승들에게 없는 높은 수준의 지혜와 이성과 도덕성이 있다. 이런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구름들의 수를 다 셀 수 없으며 하늘의 물병을 기울여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티끌과 딱딱하게 붙어버리는 흙덩이를 부드럽게 할 능력이 없다. 욥이든지 누구든지 사람은 구름과 비에게 명령할 힘이 없다. 그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39-41절]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먹이]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들의 식량]먹이]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납고 날렵한 짐승이다. 그것은 100 내지 250킬로그램의 체중을 가지고도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달려가 얼룩말, 영양, 기린, 사슴, 물소, 멧돼지 등을 사냥한다. 낮에는 보통 나무 그늘에서 쉬고 밤에 활동하며 열 마리나 스무 마리 씩 떼를 지어 산다. 사람이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할 수 없고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울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르신다.

까마귀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하며 하나님께 부르짖

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자이시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배려와 공급 속에 살고 있다. 시편 104:27-29,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만물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섭리하신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옴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시며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우쳐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땅의 기초를 놓으신 자이시다. 그는 바닷물을 주장하시는 자이시다. 그는 빛 자체이시고 세상의 빛을 주관하시는 자이시며 친히 만물과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자이시다. 그는 바다 근원과 사망의 문과 땅의 넓이를 아시는 자이시며 빛과 눈 곳간과 우박 창고를 아시고 동풍의 길도 아시는 자이시다. 그는 폭우와 우뢰와 번개 길을 내시고 이슬방울과 얼음과 서리를 주관하시는 자이시며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들을 홀로 창조하셨고 운영하시며 구름과 번개와 비를 주장하시는 자이시다. 그는 사자와 까마귀 같은 모든 동물들에게 먹을것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연만물을 주관하시는 자이시다.

우리는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위엄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려 그를 경배하며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지혜와 능력과 자비하심을 찬송하고 잠잠히 그의 섭리하심에 순응하고 그의 모든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감히 무지하게 하나님께 도전적이고 불평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엘리후가 지적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바와 같이, 만일 옴에게 그런 부족이 있었다면, 그는 그것을 뉘우쳐야 한다. 우리는 오직 전지 전능하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 39장: 동물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

[1-2절] 산(山)염소가 새끼 치는(낳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滿朔)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산염소’라는 원어(아알레-살라 פֶּלֶאֱלִי-סָלָא)는 ‘바위의 영양(羚羊)’이라는 뜻이다. 산염소나 바위의 영양 같은 짐승은 다른 동물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바위와 바위 사이 또는 동굴에 여러 마리씩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고 한다. 욥은 그런 산염소나 산양, 암사슴 같은 짐승의 새끼 출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이다.

[3-4절] 그것들은 몸을 구푸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그 고통(산고 産苦)을 던져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짐승들은 몸을 구푸리고 새끼를 낳고 그 출산의 고통을 던져 버리며 그 새끼들은 강해지고 들판에서 자라다가 어미를 떠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암사슴 같은 짐승은 새끼를 낳은 후 1년 정도 키우지만, 그 후 어린 사슴은 어미를 떠나 독립해 나간다고 한다.

[5-8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의 매펀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의 지꺼리는 것[요란함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제어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나귀는 집에서 기르는 나귀와 그 성질이 다르다. 들나귀는 들이나 척박한 벌판을 거처로 삼고 자유로이 사는 짐승이다. 그것은 성읍 사람들의 요란한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것을 제어하려고 소리를 질러도 들은 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것은 여러 가지 먹을 만한 푸른 것을 찾아 산과 풀밭을 자유로이 두루 다닌다.



[9-12절] 들소가 어찌 즐겨 네게 복종하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들소를 매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씨레](논이나 밭의 흙을 고르게 하는 도구)를 끌겠느냐? 그것의 힘이 많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며 네 타작 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위탁하겠느냐?

집에서 키우는 소는 순하게 길들여져서 외양간에 매어두기도 하고 논이나 밭을 갈게도 하고 씨레를 끌게도 하지만, 들소는 그렇지 않다. 들소는 사람에게 복종치 않기 때문에 외양간에 머물게 할 수도 없고 밭이나 논을 위해 사용할 수도 없다. 비록 그것이 힘이 많아도, 욥은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의 힘든 일들,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는 일이나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으는 일 같은 일들을 맡길 수 없다.

[13-18절]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꾸느냐?[타조들의 날개들은 사랑스런 날개와 깃털을 가지고 즐거이 퍼드덕거리도대](NASB).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劬勞)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꾀념치[마음에 두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품부하[주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암타조는 여섯 개 내지 여덟 개의 알을 모래 위 오목한 곳에 놓고 40일 가량 버려두어 부화시키는데, 발에 깨어지거나 다른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않고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그것에 대해 무정하고 그것이 깨어져도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뛰어갈 때는 말 탄 자를 무시하듯이 잘 달린다. 경주마는 시속 약 72킬로미터로 달리지만, 타조는 보통 시속 64킬로미터, 최고 145킬로미터로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한다.

[19-22절]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흘날리는 갈기(목덜미에 난 긴 털)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협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카파르 קַפָּר) [앞발로 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말은 힘이 좋은 짐승이다. 그 목에 흘날리는 갈기는 그 힘의 상징이다. 옛 시대에 말은 전쟁의 필수 도구이었다. 말은 또한 겁이 없는 짐승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해도 움츠리지 않는다. 그의 위협스러운 콧소리는 두렵다. 말은 골짜기에서 앞발로 치며 달리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앞으로 전진하며 적군들을 맞아 싸운다. 그것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않으며 칼을 만나도 물러나지 않는다.

[23-25절] 그 위에서는 전동(箭筒)('전통'이라고도 발음함[화살통]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쟁쟁하여도] 땅을 삼킬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 나는 대로 소소헤[쉴쉴히] 울며[나팔소리 가운데 '힝힝' 하고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은 그 위에서 화살통과 빛난 큰 창과 작은 창들이 쟁쟁하는 소리를 내며 땅을 삼킬 듯 맹렬히 성내고 나팔소리를 들어도 머물러 서지 않으며 나팔소리 가운데 '힝힝[혹은 '하하'] 하고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는다.

[26-27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의지함이냐?

매는 작은 것은 25센티미터, 큰 것은 66센티미터 정도 되며 날개를 퍼면 날개폭이 119센티미터나 되는 것도 있고, 독수리는 매보다 좀더 커서 크기가 보통 80-90센티미터가 되고 날개폭은 약 2미터가 된다고 한다. 또 독수리는 부리가 약 5센티미터나 되고 끝이 2.5센티미터 정도 아래로 굽어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들을 만드셨다.

**[28-30절]**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륙 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독수리는 높은 나무 위나 높은 산 절벽이나 바위 끝에 둥지를 만든다고 한다. 독수리와 매는 동물들 중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데, 매의 시력은 사람보다 약 8배나 더 좋아 하늘에서도 쥐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 그것들은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으며 짐승의 시체도 먹는다. 예수께서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마 24:28; 눅 17:37).

사람은 어떤 동물들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적고 모르는 것이 많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친히 만드셨고 그것들의 구조와 생리를 잘 아신다. 그는 다른 동물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바위들 사이나 동굴에 무리 지어 생활하는 산염소나 영양 종류나 암사슴을 만드셨고, 들이나 척박한 벌판을 거처로 삼고 자유로이 사는 들나귀와 들소도 만드셨다. 그는, 자기가 낳은 알에 대해 무정하지만 경주마보다 빠른 타조를 지으셨고 그 성질과 생리를 잘 아신다. 그는 힘있고 겁 없는 말도 만드셨다. 그는 낭떠러지에 집을 짓는 매와 독수리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본장에 언급된 여덟 가지 동물들을 친히 만드셨고 그러므로 그것들을 다 잘 아신다. 그러나 욥은 그 어느 하나도 잘 알지 못한다. 우리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욥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적 섭리자이신 그 분 앞에서 우리 자신이 지식과 능력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족한 피조물이며 또한 심히 무지하고 죄악된 존재임을 깨닫아야 하고,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무지와 불경건, 죄와 더러움을 고백하고 주 예수님의 속죄를 믿고 하나님만 높이며 그의 모든 계명을 힘써 지켜야 한다. 또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 40장: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1-5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잇소르 710)[흠을 찾는 자](BDB, KB, NASB)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하나님을 비난하는 자)(KJV, NASB)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말하기를] 나는 미천하오니(칼라 717)[보잘것없사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듯한 말을 몇 번 했다. 9:30-31,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 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 하리이다.” 13:26-27,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차꼬]에 채우시며.” 16:12-13,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취뜨리시며 나를 세워 과녁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망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27:2,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책망하셨고, 욥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보잘것없사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였다.

[6-9절]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말씀하시기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심판판단을 폐하려느냐?(annul)(한글 국한문의 ‘폐하려느냐’는 잘못된 임.)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정죄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판단과 섭리가 정당함을 위엄 있게 증거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시다. 욥은 자기 의를 변호하려고 하나님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의로운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심히 부족하며 많은 단련이 필요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정당하다. 또 성도의 고난은 언제나 유익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의 성화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숙해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는 말씀은 그런 뜻이다. 고난은 우리의 지식과 인격의 성숙을 이룬다.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華美)(하다르 ַהֲדָר)[광채]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본질적 차이를 더 느끼고 그에게 복종케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위엄과 존귀로 자신을 꾸미시고 영광과 광채를 스스로 입으셨지만(시 96:6), 욥은 그렇게 자신을 꾸밀 수 없고 영광과 광채를 입지도 못한다.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광채는 하나님과 사람의 본질적 차이이다.

**[11-14절]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바라보며] 날날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바라보며]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들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넘치는 노를 쏟아서서 모든 교만한 자들을 보시며 날날이 낮추시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다 무덤 속에, 어둑감감한 곳에 묻히게 할 수 있으시지만(사 2:11, 12, 17), 사람인 욥은 교만한 자를 보고 낮출 힘이 없고 악인을 제압하거나 징벌하여 정당하게 그를 무덤에 들어가게 할 능력도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도덕 질서가 세워지지 못하고

사람들이 고통과 탄식 속에 그런 상황을 관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불의와 불법이 있는 세상이다. 그러나 실상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 내 앞에 순복하고 내가 너를 향해 섭리하는 일에 대해 잠잠하라”는 뜻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잠잠히 바라보아야 할 뿐인 자이다.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다시 큰 짐승인 하마를 들어 말씀하신다. ‘하마’라고 번역된 원어(베헤모스 בְּהֵמוֹת—KJV, NASB, NIV)는 옛날 학자들은 ‘코끼리’로 보았고 근래 학자들은 ‘하마(河馬)’라고 보았다(BDB, KB). 본문의 묘사는 그 둘에 어느 정도 다 맞는 것 같다. 하마와 코끼리는 육지에서는 풀을 먹지만, 물 속에서도 잘 활동하는 짐승이다.

**[16-18절]**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가릿대갈빗대는 철장쇠 지팡이 같으니.

하나님께서서는 그 짐승의 힘이 허리에 있고 그 배의 힘줄에 있다고 말씀하신다. 또 그는 그것의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다. 하마의 꼬리는 보통 56센티미터이며 코끼리는 1미터라고 한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넓적다리 힘줄이 서로 연락 되었으며 그 뼈가 놋관 같고 그 갈빗대는 철장 같다고 말씀하신다. ‘갈빗대’라는 원어(게렐 קַרְנָיִם)도 ‘뼈’라는 뜻이다(BDB).

**[19-24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행하신 일들) 중에 으뜸이라. [그러나 그것을 지은 자가 칼아마 송곳니를 주었고 모든 들짐승의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 줄기 아라나 갈밭 가운데나 못

(비차 תצוק)[נ] 속에 앞드리니 연 그들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들렀구나. 하수가 창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이브타크 תצוק)[ז]자신만만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쥘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서는 그 짐승이 그가 만드신 것들 중에 으뜸이며 그것에게 칼 같은 송곳니를 주셨고 모든 들짐승의 노는 산이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며, 그것이 연 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늪 속에 앞드리니 연 그들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두르며, 강물이 넘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신만만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쥘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신다. 하마는 몸무게가 보통 1톤(1,000킬로그램) 이상이며, 가장 큰 것은 2.6톤이 되며, 코끼리는 보통 5톤이고 가장 큰 것은 6.6톤이 된다고 한다. 코끼리나 하마는 풀이나 땅의 식물을 먹고 강이나 늪에서 잘 지낸다. 그러나 하마는 요단강에 서식하지 않는다고 하니 본문의 묘사는 코끼리에 더 적합해 보인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사람은,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과 변론하거나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흠을 찾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주체롭게 하나님과 변론하거나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를 의지하고 의탁하며 겸손히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모든 섭리도 그러하시며 그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룰 줄 알아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마나 코끼리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을 알고 또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앞드려 복종해야 한다.

## 41장: 온 천하의 것이 내 것이다

[1-2절]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본문에 ‘악어’라는 원어(리웨아산 לִוְיָתָן)는 고래나 악어 같은 ‘큰 바다짐승’을 가리킨다(BDB, KB). 영어성경들은 원어의 글자대로 리바이어선(leviathan)이라고 번역했다(KJV, NASB, NIV). 사람이 낚시로 악어나 고래를 낚거나 끈으로 그 혀를 매거나 줄로 그 코를 꿰거나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는 것은 다 불가능한 일이다.

[3-5절] 그것이 어찌 네게 연속 간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네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히 네 종이 되겠느냐? 네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네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매어 두겠느냐?

악어는 몸체의 길이가 보통 3-4미터 정도이며 몸체의 무게는 200내지 250킬로그램 정도라고 한다. 악어의 화석은 예전에 15미터 정도의 악어도 있었음을 보인다. 청색 고래(blue whale)는 바다 짐승 중 가장 큰 짐승으로서 길이가 30미터 정도까지 성장하고 무게는 200톤 이상이 된다고 한다. 어떻게 이렇게 큰 바다짐승들이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며 유순한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사람과 계약을 맺고 영영히 사람의 종이 되겠는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새를 놀리듯이 놀리며 어린 딸들을 위해 그것을 줄에 매어 두겠는가?

[6-9절] 어찌 어부의 떼[동료들]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상인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네가 능히 창으로 그 가족을 찌르거나[채우거나](KJV, NASB, NIV)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채울]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 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엎드러지지 않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잡아 시장에 팔 수 있겠는가? 그들이 작살로 그 가죽에 채우고 창으로 그 머리에 채울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것을 잡으려 손을 대어도 그것이 대들까봐 놀라 엎드려질 것이다. 그것을 잡으려는 소망은 헛될 것이며 그것을 보기만 해도 엎드려질 것이다.

[10-11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NASB)(히브디마니 יָבִיא וְיִתֶּנֶּנִּי)(혹은 ‘나보다 앞서 행하여’)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악어나 고래도 제어하고 이길 용맹이 있는 자가 없거든, 하물며 그런 짐승을 만드신 하나님을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악어나 고래보다 더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자이시다. 그는 홀로 온 천하만물을 만드셨고 땅 위어나 하늘에나 바다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생물들의 소유자요 주관자이시다.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마땅하겠는가?

[12-28절]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고?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합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 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발하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그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뿔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솔이 끓는 것과 갈대의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몽키었고[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랫쪽 같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여 창황하며[당황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께서서는 또 악어 혹은 고래의 구조와 움직임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 두려운 이, 견고한 비늘, 그것의 재채기, 그 눈꺼풀, 그 입과

코의 숨결, 그 목의 힘, 그 견고한 살, 돌 같고 맷돌 아랫쪽같이 단단한 그 마음을 언급하신다. 또 그는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 당황하며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27-30절] 그것이 철을 초개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화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매 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우는구나. 몽둥이도 검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락(기와조각)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작 기계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그것은 철을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며 화살이나 물매 돌도 겨같이 여기고 몽둥이도 검불같이 여긴다.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가와조각 같아 진흙 위에 타작 기계같이 자취를 낸다.

[31-34절] 깊은 물로 솔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젖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 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라.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라아 נִסְּךָ)[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그것은 깊은 물을 끓는 솔의 물 같게 하고 바다로 젖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 나는 길을 내므로 바닷물이 백발 같다. 그것은 모든 높은 것을 두려움 없이 보며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된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천하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11절,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심과 천하만물이 다 그의 것임을 바르게 알고 인정해야 한다.

둘째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악어나 고래보다 더 크시다(10절). 창조자께서는 피조물보다 그 존재와 지혜와 위엄과 능력이 더 크시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높이며 그의 모든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라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대항하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겸손히 복종해야 한다. 우리는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피조물임을 알아야 한다.

## 42장: 욥의 회개와 회복

[1-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말하기를] 주께서는 무소불능(無所不能)하시오며 무슨 경영[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며 무엇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주권자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은 전능하신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해야 한다. 욥은 3절에 하나님께서 38:2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되받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라고 말했다. ‘이치’라는 원어(예차 **קִצְוָה**)는 ‘의논, 뜻’이라는 뜻이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 같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도전적인 말들을 했다. 이제 그는 그런 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잘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 무례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4-6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주님이시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주님이시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恨)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과거에 선조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뵈옵는다고 고백한다.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뵈옵는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친 음성을 듣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한다. 그는 의로운 자이었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순복하지 못하고 몇 번 도전적인 말들을 했다. 이제 그는 그 무례한 말들까지 회개하는 것이다. 욥은 그가 당한 고난과 그의 부족을 통해 보다 더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고 있었다.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노하셨다. 그 까닭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말이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그와 그의 자녀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줄곧 말했었다. 그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욥을 정죄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큰 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하신 것이다. 또 다른 인물인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으신 것 같다.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sup>숫양</sup>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번제 같은 제사는 아벨 때로부터 있었다. ‘번제’는 속죄와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이었다. 욥에게 잘못된 정죄의 말을 했던 친구들은 욥에게 가서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들을 위해 번제를 드려야 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그 사람에게 가서 푸는 것이 옳다.

[9절]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으나, 사람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온다고만 알고 있었고 욥을 그릇되이 정죄하였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드린 번제를 받으셨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셨고 그 중심을 받으셨다.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빌때 여호와께서는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자신을 비방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빌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물질의 복도 하나님의 복이다(창 26:12-13).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욥이 회복되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과 또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해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sup>16)</sup>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다. 그것은 욥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12-15절] 여호와께서 욥의 노년(暮年)[노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거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함복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는 욥의 노년에 복을 주셔서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셨다. 그는 양 14,000마리와 약대 6,000마리와 소 1,000여리[2,000마리]와 암나귀 1,000마리를 두었다. 그의 재산은 처음 재산의 배갑절이었다. 또 그는 처음의 수만큼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고 그의 세 딸들

---

16) ‘금 한 조각’이라는 원어(케시타 에카스 חֶסֶד אֶחָד)는 단순히 ‘한 개’라는 말로서, ‘개’라는 원어(케시타 אֶחָד) (창 33:19과 수 24:32에도 쓰임)는 그 정확한 무게를 알지 못하는 단위라고 한다(BDB, NBD).

은 전국 중에 가장 아름다웠다. 사람의 외적인 아름다움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욥은 그들에게 그 오라비들에게처럼 기업을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욥에게 물질적인 복과 가정적인 복을 주셨다.

**[16-17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높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 후에 욥은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높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 욥은 장수(長壽)하였다. 만일 우리가 욥이 30세쯤 결혼하였고 두 번이나 자녀를 열 명 낳는데 적어도 30년쯤 지났다고 가정한다면, 욥은 200세 이상을 산 것이다. 구약의 헬라이어 70인역(LXX)은 욥이 170년을 더 살았고 그의 연령이 240세이었다고 기록하였다. 그의 연령을 생각하면, 욥은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의 인물이라고 보인다.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를 살았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지식과 능력이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 중에도 무례하게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대항하지 말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하시는 일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욥기의 결론적 교훈이며 중심 진리라고 본다.

둘째로,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 당하는 이웃에 대해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고난이 특정한 죄의 징벌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이 와서 사과하면 용서해야 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비는 이웃을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교훈하셨다(마 18:22).

넷째로,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예레미야 애가 3:3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며 의롭게, 흠과 점이 없이, 온전하게 사는 자들에게 결국 평안과 회복과 영생을 주신다.

## 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졸업 (B.A.).  
총신대학 신학연구원[신학대학원] 졸업 (M.Div. equiv.).  
미국, Faith Theological Seminary 졸업 (Th.M. in N.T.).  
미국, Bob Jones University 대학원 졸업 (Ph.D. in Theology).  
계약신학대학원 교수 역임, 합정동교회 담임목사.  
[역서] J. 그레섬 메이친, 신약개론, 신앙이란 무엇인가? 등 다수.  
[저서] 구약성경강해 1, 2, 신약성경강해, 조직신학, 기독교교리개요, 기독교 윤리, 현대교회문제,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교회연합운동 비평, 복음주의 비평, 현대교회문제자료집, 기독교신앙입문, 천주교회비평 등.

---

## 옴기 강해

---

2011년 1월 7일 1판  
2019년 2월 22일 2판; 2024년 5월 31일 3판  
2025년 2월 1일 3판-수정

저 자 김 효 성

발행처 **옛신앙 출판사**  
Old-time Faith Press  
[www.oldfaith.net](http://www.oldfaith.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내  
02-334-8291, 팩스 02-337-4869  
oldfaith@hjdc.net  
등록번호: 제10-1225호

---

ISBN 978-89-98821-96-8 03230      값 4,000원

옛신앙출판사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출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背敎)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출판사 서적 안내

1.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7판]. 198쪽. 4,000원.
2. 김효성,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2판]. 170쪽. 4,000원.
3. 김효성, **교회연합운동 비평**. [2판]. 146쪽. 4,000원.
4. 김효성, **복음주의 비평**. [2판]. 166쪽. 4,000원.
5. 김효성, **천주교회 비평**. [2판]. 97쪽. 3,000원.
6. 김효성, **이단종파들**. [6판]. 70쪽. 700원.
7.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4판]. 44쪽. 2,000원.
8. 김효성, **조직신학**. [2판]. 627쪽. 6,000원.
9. 김효성, **기독교 교리개요**. [10판]. 96쪽. 2,500원.
10. 김효성, **기독교 윤리**. [7판]. 240쪽. 5,000원.
11. 김효성, **신약성경 전통본문 옹호**. 166쪽. 4,000원.
12. 김효성, **기독교 신앙입문**. [11판]. 34쪽. 2,000원.
14. 김효성, **창세기 강해**. [4판]. 356쪽. 7,000원.
15. 김효성, **출애굽기 강해**. [3판]. 205쪽. 4,000원.
16. 김효성, **레위기 강해**. [3판]. 164쪽. 4,000원.
17. 김효성, **민수기 강해**. [3판]. 179쪽. 4,000원.
18. 김효성, **신명기 강해**. [2판]. 184쪽. 4,000원.
19. 김효성, **여호수아 사사기 룯기 강해**. [3판]. 216쪽. 4,000원.
20. 김효성, **사무엘서 강해**. [3판]. 233쪽. 5,000원.
21. 김효성, **열왕기 강해**. [3판]. 217쪽. 5,000원.
22. 김효성, **역대기 강해**. [3판]. 255쪽. 6,000원.
23. 김효성,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강해**. [3판]. 132쪽. 4,000원.
24. 김효성, **욥기 강해**. [3판]. 190쪽. 4,000원.
25. 김효성, **시편 강해**. [3판]. 703쪽. 10,000원.
26. 김효성, **잠언 강해**. [3판]. 623쪽. 10,000원.
27. 김효성, **전도서 강해**. [3판]. 84쪽. 3,000원.
28. 김효성, **아가사 강해**. [3판]. 88쪽. 3,000원.
29. 김효성, **이사야 강해**. [3판]. 406쪽. 8,000원.
30. 김효성, **예레미야 및 애가 강해**. [3판]. 360쪽. 7,000원.
31. 김효성, **에스겔 다니엘 강해**. [3판]. 295쪽. 6,000원.
32. 김효성, **소선지서 강해**. [2판]. 318쪽. 6,000원.
33. 김효성, **마태복음 강해**. [2판]. 340쪽. 6,000원.
34. 김효성, **마가복음 강해**. [4판]. 224쪽. 5,000원.
35. 김효성, **누가복음 강해**. [3판]. 363쪽. 7,000원.
36. 김효성, **요한복음 강해**. [3판]. 281쪽. 5,000원.
37. 김효성, **사도행전 강해**. [3판]. 236쪽. 4,000원.
38. 김효성, **로마서 강해**. [4판]. 145쪽. 4,000원.
39. 김효성, **고린도전서 강해**. [3판]. 120쪽. 4,000원.
40. 김효성, **고린도후서 강해**. [3판]. 100쪽. 3,000원.
41. 김효성,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강해**. [3판]. 170쪽. 4,000원.
42. 김효성, **빌립보서 골로새서 강해**. [2판]. 143쪽. 4,000원.
43. 김효성, **데살로니가전후서 빌레몬서 강해**. [2판]. 92쪽. 3,000원.
44. 김효성,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강해**. [2판]. 164쪽. 4,000원.
45. 김효성, **히브리서 강해**. [3판]. 109쪽. 3,000원.
46. 김효성,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강해**. [3판]. 149쪽. 4,000원.
47. 김효성, **요한1,2,3서 유다서 강해**. [2판]. 104쪽. 3,000원.
48. 김효성, **요한계시록 강해**. [2판]. 173쪽. 4,000원.

☆ 주문: [oldfaith.net/07books.htm](http://oldfaith.net/07books.htm) 전화: 02-334-8291

☆ 계좌: 우리은행 1005-604-140217 합정동교회